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火)
本紙朝夕刊二十面
發行人 方應謨 / 編輯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西班牙의革命騷擾續報

勞働義勇軍蹶起
叛軍과交戰擊退
모록코는叛軍手中에

【마드리드二十日發同盟】西班牙政府發表에依하면 二十日 알헤시라스地方에서 勞働義勇軍은革命軍과 交戰하여 革命軍은 百十九名의 死者를내고 敗走하엿다

【마드리드二十日發同盟】모록코植民地에 勃發한 西班牙反革命運動은 十九日來 本國카나리아群島는 勿論 西南部의 세빌리아、카데이스兩州 東南部바르론나、말라가兩州는 方今 叛亂化하게되엇다 叛軍總司令은 카나리아群島駐屯司令프랑코將軍이라하며 세빌리아軍司令 데라노將軍 其他國軍의 司令도 參畫하엿다고하며 또 一九三二年 軍部革命에 失敗하고 現在 波蘭에 亡命中인 산프라호將軍도 加擔하엿다고한다 叛亂의眞相을 政府와 革命軍은 서로라디오放送을 通하야 猛烈한 宣傳戰을 演하고잇스며 通信檢閱도 嚴重을 極하고잇스므로 眞相把握은 困難하나 事態는 漸次 政府의不利에 陷하고잇는것은 擁護키 難하다 政府의空軍司令 프라드將軍은 十九日 飛行機로 모록코로 向할 豫定이던바 目下의 情勢로는 着陸할수업스므로 모록코行을 中止하엿다 또革命軍은지브랄타르附近의 라리네아와 알헤시-라스 各港에 有力한部隊를 上陸시켜 마드리드 進軍을 企圖中이라고한다 이實情에 左翼戰線內閣은 勞働團體를 總動員하야 共和政治維持에 猛烈한活動을 繼續中이다 社會黨과 共産黨은 라디오를通하야 黨員에게 프랑코將軍 로브레스氏가 企圖하는 反革命을 내리부시라고 激勵하고잇서서 이미 數千名의勞働義勇軍은 首都要所를 占領하고 勞働組合軍도 銃을잡어지고 市內를 巡邏하는等 森嚴한光景을 呈하고잇다

【오란스=알제리아=二十日發同盟】西班牙領 모록코方面의 報道에 依하면 同地方은 이미完全히革命軍의 手中에 歸하야革命軍總司令프랑코將軍은 西班牙高等辦務官에 就任하고 이와同時에 마드리드政府에도 이를通打電하야 革命軍의 勝利를 宣言하엿다고한다

英外相 佛白大使와協議

【倫敦二十日發同盟】이든英外相은 二十日午前 佛國大使 콜방氏及 白耳義大使 말센노男과 會見하고 三國巡察會談과 이어서 開催될 五個國會議에 對한 共同意見에 對하야 協議를 거듭하얏다 이든外相은 右會議席上에서 단지히自由市의 政情에 言及하야 단지히自由市의 政情은 자못 緊迫을 加하게되엇다 此際에 緊急理事會를 開催할는지 또는 英、佛、波三國만으로 協議할는지를 決할必要가잇다고 述하야 佛白兩大使의 意見을 求하고 懇談을 遂하얏는데 緊急理事會를 開催키로 決定되면 三國巡察會商도 쥬네브에서 開催하기로 變更될것으로 豫想되고잇다

히라르氏組閣코
叛亂軍을鎭壓中
바리오氏는組閣失敗

【마드리드十九日發同盟】時局收拾의 重大使命을띠고 內閣을組織한 바리오氏는 革命運動의擴大에 거의 束手無策이라 二十四時以內에 內閣을 總辭職하엿는데 이어서 海相히라-르氏가 後繼內閣을 組織하여 陸相兼總監으로 프로조스將軍을 內相에 起用하야 叛軍說得에 熱中하고잇다 新內閣은 라디오를 極度로利用하야 反軍의 經過를 放送하야 人心安定을 圖하고잇는데 事態重大化를 憂慮하고 一般軍事團體에 武器를 供與하야 叛軍掃蕩作戰을 取하고잇다

政府騷擾情報公表

【마드리드二十日發同盟】革命軍의首都進擊의 報道에 마드리드市는 極度의不安에 싸여政府軍側도 動搖의 비치잇서 約一千名의 將校가 革命軍에對하야合流를 企圖하야 一網打盡으로逮捕하야 兵營에 監禁되엇다고傳한다 政府는 騷擾情報에 關하야 如左히 公表하엿다

政府는 完全히 事態를 收拾하는中이다 叛軍의一部가軍艦을가號의 謀反承認을 利用하야 모록코의 알헤시라스에 上陸한것은 事實이다그러나 全海軍은 政府에 忠誠을 誓約하엿다 軍艦코바데스는 카디스의 叛軍에게 砲擊을 加하야 이를 潰走케하는同時에 飛行隊도 모비라를空爆하야 方

지브랄타르에避難
英人七千名

今 左翼革命의 피에굶은 國民은 意氣軒昂하야 反革命打倒에 邁進中이다

【지브랄타르二十日發】西班牙의 말라가가 延燒中이란 報道에 接하야 지브랄타르軍港當局은 同地의 在留英國人을 收容避難케 하기爲하야 驅逐艦한隻과 英艦一隻을 急派하고 지브랄타르에는 이미 七千名의 避難民이 殺到하얏는데 모다 입은것뿐인 悲慘한 狀態에잇서 當局은食糧과 宿舍를準備하는데 大煩雜中이다

西班牙全國에
모라토룸實施

【마드리드二十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革命騷擾에 鑑하야 二十日午後 全國에 一齊히 모라토룸을 公布하는 同時에 經濟恐慌防止에 關한 緊急令을 發布하엿다

一、西班牙全國의銀行及 取引所는 四十八時間取引을禁止함
一、銀行預金은 二千페세타以上을 차저냄을不得함
一、商工業上支拂 一切에對하야 모라토룸을 實施함

革命騷擾現狀을
西班牙政府公表

【마드리드十九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本國모록코에서 이러난 革命騷擾의 現狀에對하야 十九日夜半 左와如히公表하엿다

一、革命軍은 十九日 카데이스州 알헤시라스를 占據하엿는데 左翼民衆戰線의 義勇軍은 革命軍의 세비리아 進入을阻止할수잇스리라고한다
一、政府가 모록코에 急派한右翼軍艦은 머리라 스타총革命軍의本據에 砲擊을 加하야多大한損害를 與하고 革命軍은大混亂에 陷하엿다
一、카루가에搭乘한 革命軍은카데니시에上陸하려다가 政府軍에게 擊退되엿다
一、칼데나軍遣司令官及 바레자軍艦司令官은 政府에 忠誠을 誓하엿다

國運隆昌祈願祭

旣報 二、二六事件後의 全國民의 赤誠을 誓하는 國運隆昌祈願祭(中祭)는 來二十三日午前九時부터 朝鮮神宮에서 一齊히 行하기로 決定하얏다 同日 朝鮮神宮의 祭典은 今井田政務總監以下總督府 各局課長軍部諸將 其他一般官民參列下에 嚴肅히 執行할터이다

南部諸州占領코
首都目標로北上
乘勢한西班牙革命軍

【라바트(佛領모록코)二十日發同盟】西班牙革命의 情報는 通信機關을嚴重히하는데다가 政府側과 革命軍側의 宣傳이 錯綜하므로 眞相은 容易히 判明되지안흐나 當地에達한 佛國側公電에依하면 革命軍은 말라가、바라드리-드、부르에고스南部諸州를 完全히 手中에넣고 續續首都마드리드를 目標로北上하며 到處에서 政府軍과 激戰을 展開하고잇다고 傳한다 一部에는首都陷落說이傳하나 政府는 民衆을 總動員하야 嚴重한 防備를 施하고 首都死守의 決意를 固히하야 飛行機가를 有利한武器를갓고잇슴으로 首都陷落은容易치안흘것으로보인다

【라바트(佛領모록코)廿日發同盟】當地에達한 情報에 依하면 西班牙本土의 南部諸州中 안달루시아、카스티리아、아라곤、나브레의 諸州는 이미 革命軍手中에 歸하엿스나 首都마드리드는 아직政府軍에 依하야 嚴重防禦되고잇다고한다

핀트將軍、叛軍과呼應

【카이리스十九日發同盟】카이리스軍團司令 핀트將軍은 麾下精鋭를 引率하고 革命軍에 呼應蹶起하는同時에 十九日朝 라디오를 通하야 全市民에게 如左히 布告하엿다

一、武器를 携帶하고 人民에게 危害를 加하고 記念碑를 損傷하는者의 首謀者는 死刑에處함
一、集團、組合其他一切의 會合을禁止함

對日新關稅法과

輸入許可制廢止하면
通商擁護法撤回
新關稅法固執하는限通商交涉再開는無望
日本의對濠交涉方針

【東京電話同盟】日濠通商交涉再開의 報道에關하야 二十日深更에 至하여도 外務省에 公電이 업서 當局은 이에對한 態度表明을 避하고잇스나 從來의 交涉再開에對한 日本側의 根本方針은 如左히 要約할수잇다

一、濠洲政府가 對日新關稅引上을 撤回하는同時에 그特別輸入許可制를 廢止하는데잇서서는 日本側에서도 이報復手段으로 採用한 通商擁護法을 撤回할 用意가잇다 따라서濠洲政府가 新關稅政策을 固執하면서 日濠通商交涉再開를希望한다면 日本側은 爲先兩國은 現狀維持의 態容에서 交涉再開에 應諾할 用意가잇다 即 日本側은 通商擁護法을그대로 繼續하고 濠洲에 對해서도 關稅引上、輸入特許制를 그대로 放任시켜서 局面打開에 當하며 이러하야 交涉再開에 對한 濠洲側의 誠意를 認定하는限 日本側은 一早再開交涉을 應諾할터이다 그런데 前記事情에 따라 今週中에 爲先 第一回會談을 行하게될것으로 보인다

日濠通商交涉再開?

【시드니二十日發同盟】시드니駐在村井總領事는 二十日 가레트通商相에 對하야 現行差別通商制度를 持續하면서 通商條約締結交涉을 再開할意가 잇다고 通告하엿는데 新通商交涉은 今週中에칸베라에서開催될모양이다

北江에廣西軍
續續撤回開始

【廣東二十日發同盟】廣東奪取를 計畫하야 失敗한 廣西軍中 北江方面에 出動한 二、二十九日來 李、白兩氏의 命令으로 十一部는 沿道에서 嚴히 軍資物資의 徵發을 行하고잇스며 一部는 十九日 正午 西江沿岸의 肇慶에서 大撤退를 開始하엿다 一部隊는 [illegible]城에 暫時 머물것이아닌가 觀測되다

農村電化
積極的으로計畫

【東京電話同盟】農村의 工業化에對하야는 工業의分散及 農村經濟의 更生의 二大見地下에政府部內에서도 極히 熱心으로 對策을 研究中인바 特히 農村의 電化는 農村工業化의 先驅라는 見地에서 政府는 農村電化의 具體的方針을 確立하기爲하야 過般來 內閣調查局農林省、東北振興事務局을 中心으로 關係各省間에 協議를 進行하고잇는데 農村에對한 小工業用電力配給의 電化事業은 經濟上鐵道의電化와 竝行하야 行하고 鐵道沿線의 農村부터 順次로 豊富低廉한電力의 供給을 圖할것이라는 結論에 到達하엿슴으로 鐵道省에서도 從來의 消極方針을 放棄하고 國家的見地에 立脚하야 電力에 協力하기爲하야 積極的方針을 樹立하기로되엿다

重要國策은
情報委員會에聯絡

內閣情報委員會가 設置된 結果 朝鮮과 同委員會와의 聯絡에 關하야 요지음拓務省으로부터 總督府에 對하야 모다 重要國策은 拓務省을 通하야 聯絡해주기 바란다는旨의 通牒이잇서서 今後同委員會에 聯絡할 重要問題는 一一拓務省을 經하야하기로되엇다

北中의兩政權
合併은時期尙早
日本陸軍方面反對

【東京電話同盟】北中地方의 政情은 北中關係의 調整을 要求하고 冀察、冀東兩政權의 合併問題가 一部에서 論議되고잇는데 陸軍關係當局에서는 原則으로 이것을 認定하나 現下의 現地情勢로서는 時期尙早라고 하야 反對의 態度를 示하고잇다 卽 冀察政權下의 河北省은 一部는 安定되어잇스나 經濟的狀態는 依然 不安의 狀態에잇서 將來 크게 이方面에 注力하야 北中住民의 生活安定、産業復興에 依하야 經濟的水準을 높힐必要가잇는 同時에 中國의 排日態度에 充分한 批判을 加하는것이 先決條件이다 中國이 排日政策의 表現으로 貿易所와 對日高率關稅適用을 今後에도 持續하고 反日運動의 放棄를 不肯하는限 日本으로서도 冀察、冀東兩政權의 合一問題도 [illegible] 中國側이 그對日方針을 是正하고 具體的反日政策을 淸算한後 日本側과 協調하는態度를 가지는데잇서서는 日本側으로서도 그趣旨에 共鳴하야 共存共榮의 實을 擧하기爲하야 努力을 不惜할것이다 [illegible] 政權이 되게하는데 目的이 잇다 이라는데잇다

廣東財政廳長
宋子良氏任命

【上海二十日發同盟】西南政局의 變에處하고저 蔣介石氏는 諸般黨、政、軍의三方面에 亘하야廣東에對한 中央權化工作을 進行中인데 이第一着手로 二十日附로宋子良氏를 廣東財政廳長에任命하게다는旨를 通告해왓다 民政敎育二廳長도 蔣介石系廣東人을採用할터이다

神戶伊領事逝去

【神戶電話同盟】前神戶駐在伊太利領事 폰、가스코氏는 十九日午後三時十分神戶市自宅에서 逝去하얏다 享年六十九

定例局長會議

定例局長會議는 二十一日午前九時三十五分 開會하고 矢島農林局長으로부터 七月二十日 現在 水稻植付狀況、田中警務局長으로부터 火藥擊岩機兩講習會가 非[illegible] 하고 [illegible]文書課長으로부터 [illegible] 하고 大竹內務局長의 [illegible] 明年度 [illegible] 의 新規要求는 可及的 [illegible] 出해주기바란다는 [illegible] 同十時三十分 散會하엿다

議院制度調査會
廿七日第一回總會

【東京電話同盟】議院制度調査會는 來二十七日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하기로 決定되엇는데 同日은 會長廣田首相、副會長近衛貴族院議長、各委員이 出席하야 會長議長의 人事에이어서 審議方針을決定한後 內閣總理大臣의 諮問에 對하야 審議를 行할터로 結局은 特別委員을 選擇하야 이에 附託할것으로 보이는데 右諮問案은 今週中에 幹事會가 作成하야 廣田首相에게提出될터이다 그리고同委員會에서는 當面의 問題로 會計年度變更과 이에 伴하는 議會終了時間의 變更을 爲先 審議하게될 模樣이다

中央이侵入하면
最後까지抵抗
西南의對中央態度

【廣東廿日發同盟】十九日 南京에서 歸來한 李宗仁、李品仙氏等은 陳濟棠氏下野後의 時局對策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廣東의 局面이 一變한以上 廣西의 獨力으로써 積極的行動을 取하기는 不可能하다고 中央軍이 進入할때에는 끗까지 抵抗하나 그러치안는限 省境守備를 굿게하고 當分間形勢의 推移를 靜觀하기로 決定하엿스므로 그要旨를 곳 廣東에 出動中인 廣西軍에게도 傳達하엿다고 보인다 그리고 在粵中인 張任民氏는 今日 如左히 말하엿다

李白兩氏는 日本侵略에 對하야 끗까지 抗爭主義이나 國內에는 自由主義를 取하고잇스므로 廣東에서는 이미 內戰을 希望하고잇지안는 以上 廣西軍은 左粵가 必要치안타 그런데 張任民氏는 李白兩氏의 命을받고 余漢謀氏와 今後 兩廣關係에 關하야 協議할터이다

話題와人物

西班牙叛亂巨頭로브레스氏

◇ 去十八日 突然 西[illegible]에서 叛亂이 일어나 軍事的要衝을 全部占領하엿다는 報를 十九日 接한 모록코로부터 [illegible] 하여 우리나라 [illegible] 카나리아群島 其他 西班牙本土에 [illegible] 擴大하야 事態는 자못 重大化하게되엿다。

◇ 一九三二年 革命[illegible] 그側에 [illegible] 西班牙共和國은 그 [illegible] 抗爭으로 政權이 [illegible] 右翼派의 [illegible] 民衆이어 [illegible] 去二月十六日 [illegible] 人民戰線이 [illegible] 하게되어 [illegible] 이라는 [illegible] 가 [illegible] 에 [illegible] 하야 [illegible] 來하게된것이다。

◇ 今回 [illegible] 로브레스氏라 [illegible] 氏는 去二月 [illegible] 以來 [illegible] 하야 [illegible] 이 [illegible] 氏가 [illegible] 하려한 것이 [illegible] 다。

◇ 힐·로브레스氏는 [illegible] 年 [illegible] 四十八 歲의 壯年政客으로 [illegible] 「가톨릭主義」의 巨頭로 [illegible] 하야 [illegible] 그는 [illegible] 하고 [illegible] 한 [illegible] 이 사람의 [illegible] 에 [illegible] 動手를 하엿다가 左翼 [illegible] 으로 [illegible] 目標로 [illegible] 에 出馬한者로 宗敎의 힘에 依하야 社會를 [illegible] 하려한다。 그는 [illegible] 하기를 「[illegible]의 [illegible]은 [illegible]하거나 [illegible]하는데 잇지안코 이것을 [illegible]하는데잇다」 한다。 로브레스는 右翼[illegible] 特히 가톨릭敎人數는 로부터 [illegible]主의 [illegible] 그와 人[illegible] 을 [illegible]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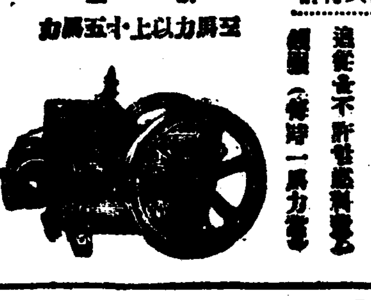
海峽條約調印에關한
佐藤代表의報告聽取

【東京電話同盟】土耳其海峽條約의 正式調印을 앞두고 有田外相은 二十日午後五時 몬트르에잇는 佐藤代表를 國際電話로呼出하야 栗山條約局長으로 하여금 十八日 行한 몬트르本會議의 詳報를 聽取케하엿는데 各國代表가 모다 留保條件을 附하고 新海峽條約에 參加하려는 日本의 根本方針에 對하야 何等異議가 업다는것을 知悉하엿스나 다시 萬全을 期하기爲하야 同八時 再次 佐藤代表를 呼出하야 調印에 對한 本會議의 議事錄과 留保條件說明의 形式、詳細報告케하야 條約參加에 對하야 遺憾업기를 期하엿는데 一時는 몬트르會議의 調印式道敷時間後에 앞두고잇섯기때문에 緊張한 場面을 展開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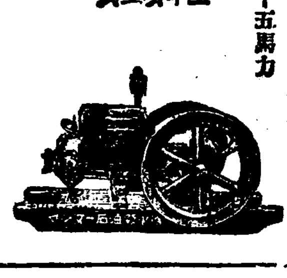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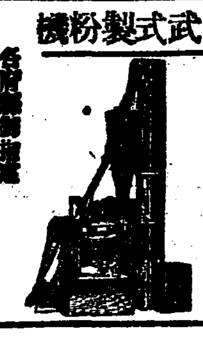
八面鋒

◇ 中國에는 南政權의 統一工作으로야단、西班牙에는 左右兩派의 勢力戰으로 統一。
◇ 戰爭과騷亂은 兩國의 年中行事、內亂만해도 世界第一等國。
◇ 武器와 機械類輸入에關한 米中金融協定이 成立되얏다고。
◇ 直接武器를 供給하는行爲는 아니나가 九國條約에는 抵觸되지안는다는말인가。
◇ 非常時國策은 結局 軍備項目에 限定되고 義務敎育延長案은 流産되리라고。
◇ 衣食足而知禮節이라더니 敎育쯤은 두어두다가해도 늦지안타는말인가。
◇ 黃平兩西의부럼은 農地보다도 食水까지 渴湯程度。
◇ 低氣壓도 이런때에 나타나면 喜雨 歡迎을바드련만。

原動機와作業機는 양마-에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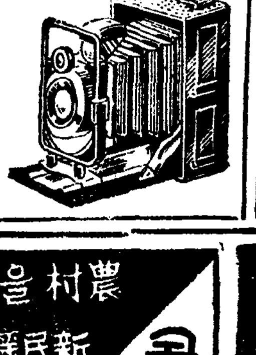
양마-
十馬力以上 百馬力
專賣特許 橫型 五馬力以上十五馬力

揚水와排水할 時期가되엿습니다 今年도 양마-폼푸를

三大特徵 揚水量倍大 所要馬力僅少 價格低廉
양마-바-지칼폼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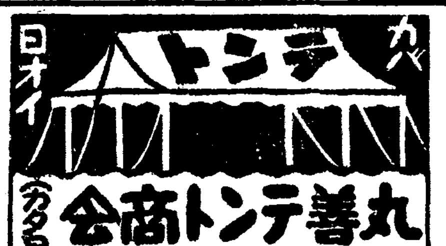
兩徑九吋以上 十九吋大小各種
양마-石油發動機 一馬力半以上 十五馬力

오후셋도式
力武式製粉機
農林省比較審査甲位入選 取扱簡易能率多大

各種製粉機 製粉은 請求하시면 御滿足을드립니다
總發賣元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京城驛前 電話本局二一〇〇三番

世界的好評의 腫症名藥
韓氏膏藥
到處藥房賣藥店販賣

한씨고약이라고차즈시요

寫眞機와材料

釜山大廳町 奧山寫眞機店 電話二四三〇 振替八五三八 カタログ進呈 定價表

胃腸病仙藥 神秘丹 大邱達城公園入口 本舖 景春堂


カオイ テントン 丸善テント商会 釜山府牧島 電話牧島長一〇八 (カタログ進呈)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 大阪天王寺區 福藥本舖

恩給 京城府 一六〇郎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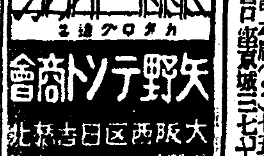
都賣散賣
鑛工衛醫處有 山用業生療方名 藥藥材器調藥賣 品料械劑品藥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點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五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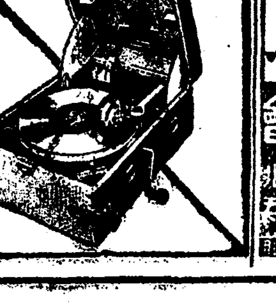
利益만흔 新職業 專屬取引者募集 ... 京城府竹添町三丁目 申込所 福仕商店京城支店 本店 大阪市天滿 電話光⑧一九二四番

京城鍾路二丁目 時計完全修理 普信堂時計舖 檢眼無料 ◎急告

丸イクフ 京城驛前

京城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②三三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二八一番 專務取締役 李圭元
京城 高무靴界元祖 大陸고무
總販賣部 京城鍾路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

矢野 矢野テント商會 大阪 北區西扇町


農村을謳歌하는 新民謠 新農夫歌 善弘植 新專屬歌手 金仁淑吹込 新民謠 그리운江南 好評의 新製品 콜럼비아 포-타블 No.214 ¥55.00


新案特許 三用ザグリ機 一、優良 一、上等品 一、新發明 一、大小各種用便利 一、化學應用 一、各種機械及機械工具 ○特約店 ○目下營業所 ○規程及型錄進呈 朝鮮工産株式會社

"都心"을目標로삼고 電區制一部를撤廢

京電과鐵道局當局間의折衝으로成案

府民要望과는距離가遙遠

경성전긔회사전차의 마포(麻浦)선로 연선주민과 청량리(淸凉里)선로의 주민들이 이러나서 전차구역을 철폐하라고 맹렬히 운동한 결과경성전긔회사당국에서는 그주민들에게 고려하겟다고회답하고 그뒤 경기도보안과(保安課)와 철도국(鐵道局)과의사이에 그대책을 강구하고잇섯든바마침내 그결정안이 작성되여철도국에 그허가를 신청중이든바불원간에 그재령이 나리게될터이라한다

즉 그결정된 안(案)으로 도심(都心)을 목표로한 구역제일부 철페안으로 실례를 들자면 마포방면이나 청량리(淸凉里)방면에서 종로부 아페나 종로나 황금정연구나 경성역압가튼 경성의 교통중심지까지 가는데나 또는 전긔중심지에서 청량리나 마포방면으로가는데 제한해서만 구역을 업새고 료금을 오전씩 밧기로 되엿스며 또종래에 세구역표를 한꺼번에 사는데는 십일전씩 밧든것을 집전으로 고치고 『빼쓰』는 종래대로 두구역으로 시행하든도은 여전히 대체로 두구역으로 시행하나 장충단(獎忠壇)넘어 앵구(櫻丘)에서 전차에 련락하는 『빼스』는 두구역제도를 폐지하고 한구역으로 시행하기로되엿다한다。

이 결정안이 시행되게된다면 종래보다는 얼마큼 료금이 헐하게되엿다할수잇겟스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구역근본철폐문제와는 아즉 그거리가 멀다고 하지안흘수업다

西小門町官舍에侵入 銀製品多數竊取

요새警戒稀薄한틈을타서

대흥정(大興町)강도사건으로 경비의 손이 희박한틈을 노려가지고 하로밤에 팔백원가량이나되는 물품을 훔친자가잇다 시내 서소문정(西小門町)총독부관사이십팔호 총독부지방과장 서강방차랑(西岡芳次郞)씨의 집에 이십일밤 어떤자가침입하야 서재에잇든 은제(銀製)우승컵 일곱개와 곳병두개등 시가약 팔백여원가량되는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하엿는데 현장에는 선명한 지문이 찍혀잇엇다 하며 급보에 접한소관 서대문서에서는 즉시 관하 각파출소와 주재소에 수배하는동시에 이십일일에는 부근일대에 산재한『룸펜』들여섯명을 잡아다가 전부의 지문을찍어 경찰부감식과에 조회하는등범인체포에 활안이 되여잇는데이십일일 오후세시까지 아직범인은 체포하지 못하엿다한다

蘇聯密偵에게 五年과二年懲役言渡

廿一日、淸津地方法院에서

【淸津支局電話】 싸베ー트러시아의 밀정으로 조선에 들어왓다가 잡혀온 김대욱(金大旭)김학순(金鶴淳)의 두명에 관한사건은 이십일일 오전십시 청진지방법원에서 호전(戶田)판사로부터 김대욱에게 징역오년, 김학순에게 징역삼년을 각각언도하엿다

두女子를轢傷

이십일일 오후한시반경 무교정(武橋町)이정목 무교다리를 짐을머리에 이고 건너가든 두부인이경제구천삼백여섯이호자동차에 다치여곳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에 입원치료중이다 원인은 운전수가취업한지얼마아되여서 아직도 운전이 서투른탓이라고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장교정(長橋町)륙십삼번지 김명원 (金明[illegible]

딸의德에 살던老翁 未安타고飮毒自殺

"부대네나잘살라고"遺言

사랑하는내딸의 행복을 빌면서 죽어간가난한늙은 아버지=이십일오후다섯시반경에 시내청진정(淸進町) 삼십이번지의 일호에 사는 김홍수(金洪洙)(六四)라는로인이 쥐잡는약을먹고 신음하는것을 마침외출하엿다가 돌아온 그의딸김산홍(金山紅)(二[illegible])이가발견하고곳부근전치의원(全治醫院)의사를 청하야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원체 로쇠한몸이라끗끗내 『부대너나 잘살아가라』는 눈물의 한마디를 그딸에게남긴채절명되고 말엇다 이제그자살원인을듯건대 전긔로인은 늙은 부모가 아들도업시 다만 딸하나를 곱게길러서 남에게지지안케 시내모녀자고등보통학교까지 교육을 시긴다음 수년전에 부자집첩으로 시집을보냇더니 끗내길살지 못하고 금년봄에 의지할곳이업는 자와 떠러저서 기생의몸이되여 생활하여가든중 사랑하는딸에게 신세만을 끼치는것을 괴로히생각하고 발작적으로 그와가티음독자살한것이라고한다

故方定煥記念碑 二十三日에建立

조선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요조선문화사업의 공로자인 고소파 방정환(故小波方定煥)씨가 이세상을 떠난지도 이미 오주년이 되야 씨의오주긔를 마지하면서 씨의 생전의 공로를 긔념하고 그의 외로운 령을 위로코저씨와가장 갓가운 친지 여러분의 손으로 오는칠월이십삼일 씨의 오주긔일을 긔하야 조고마한긔념비를 해세우기로햇다 함은이미본보에 게재한바어니와 그간 발긔인 일동의정성과 또는사회 일반의 가진거금(據金)이 의외에 만히서 예정대로 오는이십삼일 아레와가티 긔념비 제막식을 거행한다는바 누구나 씨와 생전에 교분이잇든분은 물론이요 일반 래참도 바란다 그리고 장소가 시외인만치래참하시는분의 편의를 도모키위하야 당일오후네시 청량리역전에서 동시일구까지 뻐스를 임시대절하야 한사람의 왕복차임을 륙십전으로 작정하엿다하니 이를 리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한다

時日 七月廿三日午後五時

場所 楊州郡峨嵯山家族墓地

金九의部下 金泰德押來

仁川入港、江原道로

【仁川支局電話】 오늘아츰 여섯시에 상해로부터 인천에입항하는 평안환(平安丸)에는 김구(金九)의부하로서 중국각지에서 활동하엿다는 김태덕(金泰德)(三九)을 압래하엿는데 이를알고 미리부터 인천에와잇든 강원도경찰부 형사두사람은 곳김태덕의 인도를바더가지고 그고향인 강원도를향하야 금조 아홉시 인천역출발의 긔차로 떠낫는데 경성은 그대로 지내기만하는모양이라한다

落第生의出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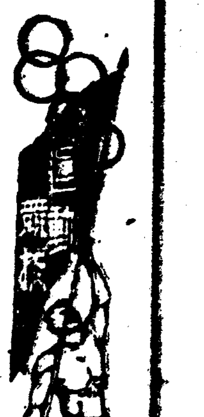
인생행로십년은 시험(試驗)의 탑(塔)!이탑을정복하려든 절문이가 그에실패하자 마침내집을떠난이야기 충북보은군 회북면눌곡리(忠北報恩郡懷北面訥谷里)박봉수(朴鳳秀)(二[illegible])는 일즉이청주고보(淸州高普)를 졸업하고 타오르는 대망을가슴에품고 수차시내모전문학교의 입학시험을치럿스나 뜻것내그의로력은 실패에도라가고마럿다한다 이에그는 쓰라린 참패자의설음을 가슴에품고 재생을귀하야 계속공부하든중 수일전 돌연청주(淸州)로 간다고한마디말을남겨노코 집을떠난채로 하등의 소식조차업서 마일을념려한 그의부형은 시내본정서에수사원을제출하엿다한다

前科者所爲로確認코 犯行方法을嚴調

中國人襲擊强盜金學根逮捕까지의苦心

서부경성 일대를 횡행하면서 중국인채소장사집을 습격하엿든 강도단의수괴 김학근(金學根)을 체포한 서대문서에서는 남은두 범인련루자도 판명되엿슴으로, 그들의뒤를딸아서 형사대를 사방에 파견하엿는데 그중하명만은 어렵지안케 체포될것가트나 남은한명은 어떠면 좀더시일이걸릴모양갓다고한다 그런데 금번범인을 검거하게된 단서는 범행을엄밀히조사한결과 강도전과자의 범행이라는 점을 밝히고다음에는 범행이어떤수단으로되엿는가하는점을조사한결과 전부터 경찰부형사과에 갓추어 만들어두엇든전과자의 범행수법(手法)에비치워보고 그범행에류사한 전과자를약이십명가량인치하고 련일취조중 십팔일에 인치하엿든전과자 김학근이가 그중유력하야 련일엄중한취조를하엿든바마침내범행을 자백하엿다한다

朝鮮軟式庭球 六十九名遠征



一般、專門、男女中等各部代表

三重縣宇治山田市에

來八月四日부터 三重縣宇治山田市에서 開催될 第二回伊勢神宮全日本軟式庭球大會에 出場하는 朝鮮代表 一般男子部、男子專門部、男女中等部派遣選手五十八名과役員引率者十一名을 合하야六十九名을 選定發表하엿는데 一行은 八月一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列車로出征할터이라한다

◀聯盟側監督者=李承濊(專賣局)

◀中等男子部、野部、朝銀、專門學生部、和業(總府)一般男子部

◀學生側引率者=河允寬(普成高普) 中務(京城女高普) 吉浦(海州高女) 福島(養正高普) 松岡(龍中)

◀男子一般部=嚴秉律(總府)權爾仁(延專)鄭士連(鐵道)朴龍善(殖銀)崔永生(殖銀)洪承武(殖銀)黃基成(專賣)張(遞信)渡邊(鐵道)宮崎(遞信)淺野(專賣)

◀男子專門學生部=[illegible]

◀男子中等學生部=李[illegible](普成高普)朱[illegible] 尹[illegible](養正高普) 李[illegible] 金亨泰(徽文高普) 張日[illegible] 桂[illegible](新義州商業) 吉仁[illegible] 車三[illegible](安州農業) 金炳斗 宋在百(善隣商業) 尹錫彬 上谷(京畿商業)安井 西村(龍中)

◀女子中等學生部=[illegible] 林[illegible] 玉 金鐘沃 李[illegible](京城女高普) 張[illegible] 吳[illegible] 姜[illegible] 崔[illegible] 崔貞淑(同德女高普) 山邊 村山 早瀨(海州高女) 神保 古[illegible](第二高女)

載寧서留學生敗退

【載寧】 東京留學生庭球團對[illegible]

第一回全鮮爭覇 都對抗庭球

平壤庭球團主催로

【平壤】 平壤庭球團에서는 本社平壤支局後援下에 八月十五、六兩日間 平壤府內 [illegible]에서 第一回全鮮都市對抗庭球大會를 開催키로 되엿다 參加規定과 其他는 追後發表하려니와 一『팀』三組(一組二名)로 一都市에서 二『팀』以上도 出場할수잇다 한다

咸興蹴球團과 延專無勝負

關北遠征第二戰

【咸興】 關北遠征第一戰에 元山軍을 十一對零으로 이긴 延專蹴球團과 咸興蹴球團과의 第二次戰은 二十日 午後四時부터 咸興公設運動場에서 開始되바 [illegible] 二對二의 無勝負로마치엿다

廣島高女排球 在東各團과對戰

[illegible]排球協會에서는 全日本女子排球選手權保持者인 廣島高女軍을 招聘하기로되엿는데同軍은二十四日午前七時四十五分에來京하야 다음의日程으로 京城運動場에서在京各團과對戰할터이라한다

廿五日午前九時半 入場式

〃 同十時對京城第一高女

〃 午後一時對京城女高普

〃 午後三時對京城女師演習科

廿六日午前十時對龍谷女高女

〃 午後一時對京城第二高女

〃 三時對鐵道局

運動界人事

◀近藤得三氏(全京城野球部長、都市對抗野球戰에出場)人事次來社

◀淺原昌治氏(同監督)同上

◀鈴木忠雄氏(同마네저ー)同上

新進青年의好職業

朝鮮電氣醫療界의大發展 곳獨立法規도實現

[illegible]

炎熱!北朝鮮에狂奔

元山은九十八度六分

卅年來初有의殺人的酷暑

十日만繼續하면 農作物은枯死難免

【元山】 요사이 원산지방은 매일구십도를 나리지아는 염열지옥(炎熱地獄)을 말우고 잇는데 지난십구일은 구십팔도륙분이라는 삼십년래초유의 살인적더위의 긔록을지어엇다 이러한 폭열때문에 원산부근 일대의 농작물은 모다고갈상태에 이르러는 [illegible]이되여가고 밧곡식들도 입사귀가 팔라죽어 이대로 열흘만계속하면 [illegible]

咸興은九十七度八分

農事試驗場創設後最高記錄

【咸興】 함흥부근은 지난 십팔일부터 갑작이 수은주가 팔등하기시작하야 그날에는 구십이도 십구일에는 구십오도로서 련일 파과록적혹서가 계속하고잇든바 이십일일에 이르러서는 그 절정에 달하야 섭씨삼십육도륙분 화씨로는 구십칠도팔분이라는 함흥농사시험장 창설이래로 최고긔록을지어엇다。 동시험장의 말을 들으면 더위는 아직도 더욱계속할것이라고하며 구도로 마른후에 이와가티혹염이 내려쪼여 농작물에는 다시업는 해를 주게되것이라고한다。

廢鑛으로詐欺

旣報=수차보도한 현재본정서에서 취조중인 충북제천군한수면 덕곡리(忠北堤川郡寒水面德谷里)임대재(任大宰)(五[illegible])의 광산사긔사건은 그후취조에따러 사건의 전모가 폭로되엿다한다 그는 종로(鍾路)오정목 오십일번지 전과사범 강두영(姜斗永)이와 공모하야 강두영의소유인 충남아산군온양면(忠南牙山郡溫陽面)에잇는 광산이 폐광되다십히된것을, 밋긔로 시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삼번지 소평양삼(小平亮三)에게서 삼천백오십원을 사긔한것을비롯하야 약칠천원가량 사긔하엿다한다

身分모를老屍

부내 신설정(新設町)에 잇는 경성경마장(京城競馬場)안에 나이 륙십가량되여보이는 로인의 시체가잇서서 검시한결과 이십일 오후네시경에 죽은것으로 추측되며 『만성위가다루』(慢性胃加答兒)가 원인이라하며 주소성명은 도모지 알수업다

天氣予報

槪況 今年 들어서 처음나타난 颱風은那覇의東海上에잇서 七四二미리를 보히고 北北西를進行하고잇다 高氣壓은日本東方海上에 七六二미리를 보히고 그先端은 朝鮮半島에 突出하고 北滿에는 低氣壓이 東行하고잇다 滿洲는 雨天 鮮西岸及南岸은 曇 곳곳에 안개가잇고 東岸은晴天이다 琉球諸島는 날세가낫부고 日本內地는 조흐나 東北地方以北은곳곳에 비가온다 颱風의影響으로엇슴으로 來日도日氣가조치안흘것이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개엿다 흐리다하고 來日도갯고 京畿全道도갯다

昨日最高 三〇度四 / 同日最低 二〇度〇 / 今朝正午 二九度一 [illegible]

"都心"에 縮小된 "碧海心"

◇……光化門通네거리 噴水塔……◇

내려쪼이는 폭양에 갑작히 수은주는 뛰어올라 날마다 상승선(上昇線)을 그리고잇다 고층 건축물에 반사되는 해볏은 눈을부시게하고 포도우에 반사되는 땅볏은 화끈화끈 쪼이며 도심(都心)의 『아스팔트』우에만놀 오고가고하는시민으로하여끔 따일종 훌훌 그리워하게하야 그들의 정신은 한울가이 바위와 모래에 부다치는 해변으로 허러지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머리에물을 그려봄으로 세류봄으로 뛰어갈 여유와 시간을 가지지못하고 아모리 더워도 『아스팔트』우으로부터 『아스팔트』에로 악착한 생활전선에。 해매이지안흘수업는데이다 물을 그리워하면서 물가로 못가는 이도회인들을위하야 문명도시에는 도심곳곳에 소공원과 분수탑을 만들어 그곳에서 나오는물을보고 그들이 그리워하지안는 물의 동경을 위안케한다 경성에도 광화문통네거리를 위시하야 여러곳에 분수탑을 설치키로되야 몃출전부터 공사중이든바 거의준공되야 이삼일 야중에는 사진과가티 분수탑의 배리저변에서 잘잔이나마 물이나오기시작하엿다 오늘은 십향으로서 이분수탑이 푸츳한 물을내어뿜어고 어것이 드되여 가레의 좋아하게되기는 오는 팔월초생부터이리라고한다

『蔘茸トニク』 蔘茸토닉

萬病의效力이엿을 「홀몬」과各種「뷔타민」은 完全히生液으로

蔘茸의硏究와眞珠역中心이되여엿든 [illegible] 本劑를推奬하신諸先生

醫學博士 橋本 吉[illegible] 先生 / 醫學博士 玉[illegible] 先生 / [illegible]

定價 (五百瓦入) 五圓、(二百五十瓦入) 二圓八十錢

各百貨店及有名藥店에잇습니다

製造元 京城鍾路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振替京城一九〇七番

大奉仕特賣

御愛用家庭品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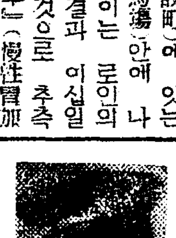
今期間中 이까리소ー쓰 二合瓶한개를사시는분마다 實用 유리小皿 한個式빠짐업시進呈 速히下命하시옵기를!

イカリ 이가리 ソース 소ー스

柳韓洋行

呼吸器疾患의 豫防과治療에는 네오톤토닉 소로

巡査看守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二冊無料進呈 京城府永樂町二丁目一番地 朝鮮警務學會 振替京城三〇〇〇番 (規則書即送)

體鏡이곳 증인

영국 『런던』 시가에서 『래빈』 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점에 드러가 『네타이』 세개를 훔쳐 가지고 시침을 뚝 따고서는 약간의 물건을 산 후에 나가려하엿다 주인이 돌파게도 『넥타이』 가진 것을 알아 나고 내버리엿다 그래서 주인은 저의 주머니를 마저 보며 『래빈』은 『넥타이』를 산 상점에서 산것이라고 변명하엿다 그러나 결국 그런 일이 업다 하고 주인은 『래빈』의 상점에 다른 물품을 갓다 가 보이고 그것을 ... [illegible]

外科 X光線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醫學博士 鄭求忠 電話光化門 六八五番

갑장 장갑

製造家量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 京城을 중심으로 [illegible]

朝日軍手京城支店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業主婦○收入多[illegible] 大阪大軌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毛生藥 후미나인

博士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 無代進呈

田中醫學博士의創製인털나는藥フミナイン은毛髮의發生을促進하야그脫落及지게미를防止하고、即頭頂、눈섭、수염、腋毛、其他人體의毛髮이稀薄한것을말끔하게하고 毛根이라도 잘나는藥

フミナイン의靈驗으로 禿頭病에依하야 [illegible]

毛髮의 脫落時期[illegible] 豫防하고 또 이諸病에 原因한 禿頭脫毛에 對하야서도 病菌을 殺滅식혀서 그와 갓치 털을나게 하오。

●대머리●절은대머리●철성긴대●脫毛●털어털빠진대●대리곡지상한대●눈섭성긴대●털빠진대●男女의곡잇슬곳에털업는분……은곳정말고곳使用하라

(全國藥店에잇슴)

フミナイン價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十二錢、第一品到時는代金을 付送 [illegible]

標準品만흠 꼭フミナイン이라指名하시고買入하시오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 東京藥院 / 大阪市天王寺區 東京藥院

입으로들어오는병을막고
정신을상쾌케하는!

口中殺菌劑

カ(가)オ(오)ー ル(루)

全鮮有力藥店과協力하야
夏季衛生保健運動開催

カ(가)オ(오)ー ル(루)의藥効가모든病을豫防하는데잇슴으로弊舖는늘衛生保健思想의普及徹底化에힘써오든바이오나今番全鮮各地有力藥店의協力을바다서多大한犧牲을무릅쓰고全鮮의保健運動을일으켜서더욱이것의普及徹底를期코자하오니만흔援助를하여주시기바라는바입니다

위생보건운동기한과방법

病(병)菌(균)이蔓(만)延(연)되기쉬운七、八、九、三箇月에
한하야全(전)鮮(선)有(유)力(력)藥(약)店(점)에서(右記포스타ー걸닌곳)
カオール五錢包(四十五粒入)壹個와
衛生家必携保健要訣附人体解剖圖壹部를

進呈!

거저드립니다

여러분은이期間中더욱衛生에注意하시사
飮食을잡수신후、출입하실때
사람모힌곳에게실때
等에는반듯이カオール의두세알을
口中에너두시사 病에걸니지
안토록 注意하여주시요

더위를잇게하고 구미를돗아주여
무사히여름을지내시게하여줌니다

▲定價와容量◀

箱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ポケット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艶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光輝天金石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保險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本舖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東京市日本橋區蠣殼町水天宮前

二十一日(火曜)

◇午後六時三〇分피아노獨奏 李[illegible]元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童話 尹乙秀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雅樂 一、[illegible] 二、[illegible] 李王職雅樂部 [illegible] 成[illegible]
◇同九時 [illegible] 一、[illegible] 老人歌 二、[illegible]

◇同九時三〇分 [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第一放送

◇午後六時(東)이야기 [illegible]
◇同六時二五分(東) [illegible]
◇同七時三〇分(東) [illegible]
◇同八時 [illegible]
◇同八時二五分(東) [illegible] 日本[illegible]
◇同八時五五分(東) [illegible]

二十二日(水曜)

◇午後零時五分 [illegible] 一、[illegible] 가、平[illegible] 나、[illegible] 二、[illegible] 三、굿거리 [illegible] 박아리랑
◇同三時一五分 [illegible]
◇午後六時三〇分 [illegible] 一、[illegible] 二、나의 노래 三、어룽네 四、우리들 머니 五、무지개다리 六、[illegible] 七、자장가(獨唱) 八、소곰쟁이 九、[illegible]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illegible](二)
◇同八時 "[illegible]이야기"
◇同八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날이밝으면 비가오겟니다" 一幕 [illegible]作 [illegible]

◇同九時 제네가外 一、제네가 二、[illegible] 三、[illegible] 四、[illegible]
◇同九時三〇分 [illegible] 一、[illegible]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잔모리 二、[illegible] 가、[illegible] 나、[illegible] 다、[illegible] 아리랑 [illegible] 丁元[illegibl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illegible]
◇午後零時五分 (東) [illegible] 九一[illegible]
◇同六時 (東) 어린이日本史
◇同六時二五分 (東)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illegible]
◇同八時 피아노獨奏
◇同八時二〇分 (東) 라디오·코메듸
◇同九時 (大) [illegible]

二十三日(木曜)

◇午後零時五分 (大)吹奏樂 一、[illegible]「세빌리아理髮師」序曲 [illegible] 二、「슬라브狂詩曲」[illegible] 三、歌劇「[illegible]」……마이아-벨[illegible] 大阪市音樂隊 指揮 林[illegible]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일요사자고 일을하겠시다」
◇同六時三〇分 라디오世界一週「스위텐노르웨이」(二)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朝鮮[illegible]講座(二)
◇同八時 "[illegible]이야기"
◇同八時三〇分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illegible] 三、山念佛 四、기-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illegible]
◇同九時 古談"[illegible]"
◇同九時三〇分 歌曲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illegible] 四、[illegible] 五、[illegible]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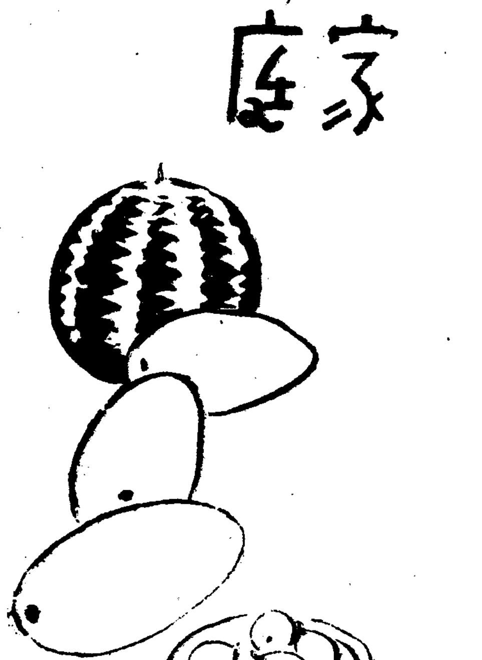
◇午前六時三〇分(東) [illegible]
◇午後六時 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心[illegible]
◇同七時三〇分 [illegible]
◇同八時(東) [illegible]
◇同八時三〇分(東) [illegible]
◇同八時五〇分(大) [illegible]

曆

七月廿二日(水) 舊乙未六月小(舊四日) 乙巳·火·軫·開
●祭祀嫁娶移徙裁衣上樑辰時納畜
祭祀에宜함
●大暑二十三日(舊初五日)
●立秋八日(舊廿一日)

바다의 에피소-드

家庭



야위긴 왜야위? 녀름 더위는 보약

그러나 과도한로동이면 걱정이다

편한사람은 한껏조흔철

녀름은 대개로 피로운철、귀찮흔철、몸이 야위는 철로만 아오나 반드시 그런것도 아니올시다。어느 사람을 물것가트면 녀름으로 들어서서 다른 철보다도 도리어 살이 올라서 몸이 똥똥하야 지는 수도 업지안습니다。그러니까 녀름을 타는 사람도잇지오만은 녀름을 타지 안는 사람도 잇는 것입니다。녀름이 조치안한 사람도 잇지오만은 녀름이 조흔 사람도 잇습니다。그러면 어째서 어떤 사람은 녀름을 타고 또 어째서 어떤사람은 녀름을 타지안습니까? 그 까닭을좀 알아두는것이 녀름섭생을 위하야 필요치 안켓습니까?

녀름에는 나리쪼이는 해ㅅ볏도 무섭지만은 땅에서 다시 반사(反射)되야 올라오는 해ㅅ볏은 더한층 무섭습니다 요컨대 녀름의 더위란 우에서도 오지만은 아레서도 올나다。그러니 그중간에 끼여잇는 우리가 어떠케 견듸겟습니까? 더구나 녀름 햇볏에는 자외선이 만하서 살이 모도 끌지를안습니까? 살이 끄는것은 결국 일종의 화상(火傷)입니다。피부는 그러한 화상과 싸호느라고 객적은 고생을 하게됩니다。그이외에도 자외선이 만흔관계로 신진대사(新陳代謝)가 빠르지를 안습니까? 외긔가 더워서 거의 체온과 가까워지는관계로 호흡이 곤난해지지를 안습니까 그러므로 녀름에는 조곰만해도 피로(疲勞)가 됩니다 피로가되는만큼 소화긔능(消化機能)이 감퇴되야 식욕도 줄고 영양섭취(營養攝取)도 변변치 못하야 집니다 이러케 되고 보니 괴롭고 귀찮흔것이정한 일입니다 몰론 다른철보담 훨석 야위어 질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야 본다면 첫재로 신진대사가 빠르고 또 치위로 빼앗기든에 넬기가 그만큼 보존되야 잇슬것이 아닙니까? 그러라고 할것 가트면 식욕이 왕성해저서 살이 쩌야 할것이아니겟습니까? 물론 그것은 아모일도 안하고 그저 적당하게 쫌 운동이나 하고 시원한바람마지에 등의자를 노코 편안하게 두러누워서 코ㅅ노래나 부르는 친구들의 일입니다

다。매입매일 땀을 흘리고일을해서 식구건사 제몸건사를 해가는 월급쟁이나 노동자들로는 도저히 바랄수도 업는 일입니다。단지 사람에따아서는 체온을조절하는 긔능이조치못한사람도 잇습니다。그런 사람은 겨울이 특별히 괴롭고 귀찮흔 만큼 차라리 더운녀름을 환영하게시리 됩니다。

×

하여튼 편안하게만 지낼수잇다면 녀름이 도리어 다른철보담 조흔 철일는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못지내는 우리의 신세가 가엽지 녀름철이 결코 나뿐철은 아니랍니다。

빨래하는데는 무슨비누가조흔가

식물성의것이아니면 때가좀처럼안빠진다

세탁비누를서보면 때가잘지는것이잇고 잘안지는것이잇습니다 무슨까닭일까

◇

비누의원료(原料)에는 동물성(動物性)지방을 써서만든것과 식물성(植物性)지방을써서 만든두가지것이잇는데 동물성지방으로 맨든비누는 랭수에 잘푸러지지안치만 식물성지방으로맨든비누는 찬물에나 더운물에나 잘푸러저서 거품이 대단히 잘이릅니다

◇

동물성의 비누는 식물성의비누보다 흡착력이 훨신강하기때문에 이것으로 빨래를하면 때를잘빠라내는한편으로 비누자신이 옷감의섬유(纖維)에 배여드러 별짓을다한대도 비누기운이잘빠지지안는결점이 잇습니다 이러한점으로보아 세탁비누로서는 동물성의 비누보다 식물성의 비누가 낫다고할수잇습니다 식물성의 비누는 야자유(椰子油)콩기름을 래개 원료로삼은것이니까 적당한것입니다

◇

세수비누가 다다라서 조고마케되면 세탁용또는 부억설거지용으로 돌려버리는수가만습니다다만 세수비누는동물성지방을 원료로햇기때문에 부적당합니다 세탁비누로 썩조흔것을『마루세루』라고 하는데『마루세루』비누는 식물성의 비누이기때문입니다 맨처음 란서『말세유』에서 맨드럿기때문에『마루세루』란 이름이되엿다합니다 엇잿든세탁비누로『마르세루』는지금도이것이 정평이 잇는모양입니다

이래보여도 오-토빠이

경제적자동자전거。축도적게드리고 쓸수잇는오-토빠이라고해서 맨드러낸것이 미국로산젤스의하드레이놈란사람의 오-토빠이올시다 캘리포-니아 패시픽」 박람회에서 재주를한께론으로 일백칠십마일이상을달려서 사람을 놀나게햇습니다 그러나 한시간의 속력이 불과칠마일밧게 빠르지를못한모양인가바요) 사진은 미인을 태워가지고 달니는 오-토빠이

가정의화

문 다리가마르는병

생으금년사십이세이온대십여년전부터다리가 마르기시작하는대 지금은무릅이쑤시고 아프며 오한조차심하오 이병을엇지하면나흘수잇슬까요 분명중이라도자세히가리처주시기 바랍니다 (삼송일독자)

답 병증세로만 생각하더래도 판절염 각기 신경염등을생각할수잇습니다 판절염이면 우선원인을 치료해야 하고다려가야할것이며 판절을더웁게하고 마른곳을마찰과운동을하게하십시요 각기면『베라민·삐』제륙『오리자닌』등을자시게하시요 오한이잇다하니아마 각기는아닌것도 갓습니다 신경염이면 전긔치료를하고 옥도제(沃度劑)를복용할것입니다 또는 피를검사하야매독의유무를알필요가잇습니다 좌우간 한번전문과에진찰바드심이적당할것갓습니다 (聖母病院長 朴秉來)

문 수술후의흉터

금년십구세의녀자인데 어려서 돌에부듸처 그즉시로 그흉을 병원에서 꾸매서 그숭이 크게되어서 비관하고 오든차에 십오년만에 대학병원에가서 수술을하얏는데 도리혀 그흉이 더 붉은점이잇고 커젓스니 낫지아니하니까 붉은숭이아니업서집니까? (市內 一讀者)

답 귀하와가튼 경우를당하는분이 퍽이나만습니다。정형수술이란 원래 백퍼-센트의효과를 긔대할수업는데다가 귀하와가티 수술후에 붉은점이 생기는체질(이런이를『케로이드』성체질이라고합니다)에는 수술로인하야 새살이 더불거저나와서 보기실케됩니다。『렌트겐』치료를 수술후에 병행하면 얼마간은『케로이드』되는것을 방지할수 잇스니 열차 시험해보시고 그래도 아니되거든 단념하시는수밧게업습니다 (城大小川外科醫學博士金晟鎭)

動物愛護談 ⑧

수달피를 기른 어미고양이 (一)

崔秉和

『아조 귀여운김생을 한마리 어더왓다』 아버지는 어려케 말슴하시면서 치롱속에서 조고마한 김생한마리를 끄내시엿습니다。크기는 쥐만하고 가늘고꼽다란 털은 윤이 빤들빤들하게 흘넛습니다。치롱속에서 나온 조고마한김생은 한거름도 것지못하면서 부들부들 떨고만잇섯습니다。『고것 퍽 귀엽게생겻구료』『귀여운것보다도 불상하지안호?』

『뭐 무서운가 저러케 떨고잇스니』『아마 춥가보지』 아려한 이야기가 적은 김생을 보고 잇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입에서 새여 나왓습니다。『아버지 이게 무슨 김생이에요?』하고 큰아들이 무럿습니다 『글세……』하고 아버지께서는 자세히 모르시는지 한참 우물주물하시다가 『무어일가 아마 무슨김생의새길데지。넘우귀여워서잡어와다。』 『우리들도 생긴줄은안다우。』 제일끄테의딸이 아버지말끗테 어려케 따라말을해서 모다들 우섯습니다。

『무어일까?』

『글세 무어일가?』할뿐으로 누구한사람 자세히 알수업섯는데 얼마뒤에 동리하라버지가 오시자 즉시 알게되엿습니다。『이건 어듸서 낫나、귀한김생인데 이거 수달피(獺)의새길세——난지 몃날지나지안핫는데。』

수달피란말을듯고 여려아이들은 퍽들 조와하엿습니다。『우리 잘길느자』의론이 즉시결정이되엿습니다。수달피는 아즉갓난것이므로 음식을 잘먹지를못하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간난아이모양으로 고무젓꼭지가달린 우유병으로 우유를 먹이엿습니다 아이들은 돌려가면서한달이상을 시중들고 돌보아주엇습니다。

그러나 두달제나되니깐 고만 실증들이나서 수달피를 이저버리게 되엿습니다 시중드는사람들이 돌보아주지 안허서 수달피는 어미일흔 아이모양으로밥울굼게까지되엿습니다。그러나얼마안가서 새로운 어머니가 나스게되엿습니다。그새 어머니는 멧출전에 색기고양이를 일어버리고 쓸쓸하게지내는 어미고양이엿습니다。고양이는 수달피색기를 껴안기도하고 할기도하고하기를 때때로 작난감모양으로 퍽귀여워하는 모양이엿습니다。

『저고양이는 수달피색기를 죽은자긔자식으로 잘못알고잇는것이 아닐가?』

『그런지도 모르겟다。』

『잘못알앗스면 깨닷는날이면 큰일나지안흘가?』 아이들은 이러케를 이약이하엿습니다。점점 수달피색기는 커저서 어미고양이만큼 되엿는데 어느날 뜰압 개울여페서 놀고잇슬때에 한 사건이 일어낫습니다。

『풍덩!』하는소리가 들녓습니다。얼른나가보니깐 수달피색기는 물속에 뛰여드러갓습니다。깜작놀난고양이는 연해연방『야옹! 야옹』하면서 눈을둥그랏케뜨고 수달피를 도리지도록 바라보면서 엇쩔줄을 빙글빙글도라단이엿습니다。

그러나 물결을이르키면서 수달피는 몹시도 자유스럽게 헤염을치고잇섯습니다 이것을본 고양이는 우는것도 도라다니는것도 끗치고 그냥 가장사리에서서 오죽 그하는꼴만 바라보고잇섯습니다。

방학되든날

우리집에 잇는 학생들은 방학이되여 다들 고향으로 도라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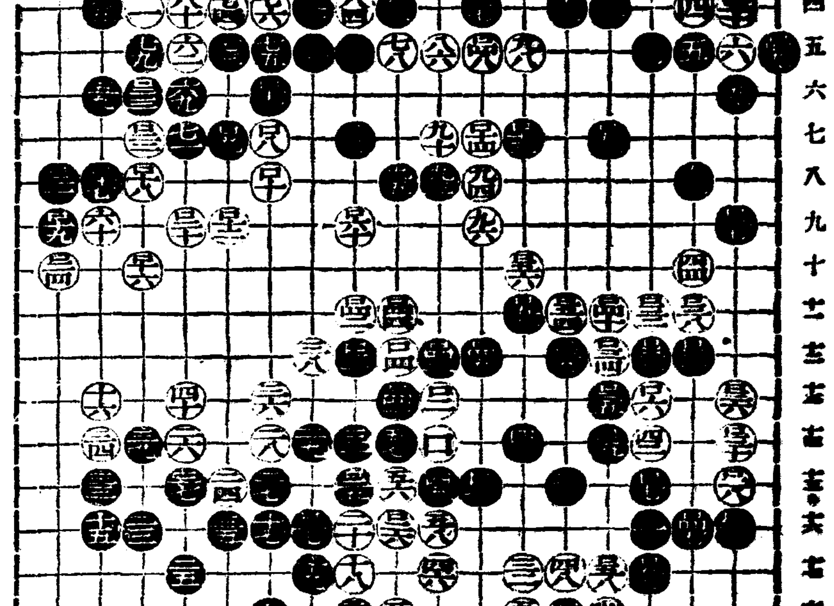
내가 언니라고 부르는 남학생 둘은 어재밤기차로 떠낫서요。

누나라고 부르는 녀학생하나는 오늘 아침 차부에 나가 자동차로 떠낫습니다。

(공옥사교 김원화)

圍碁對局譜 —10—

白 丁奎春
黑(先) 崔[illegible]



● 辛의十二
○ 癸의十九
● 丙의十六
○ 辛의五
● 甲의五
○ 乙의四
● 己의二
○ 戊의二
● 戊의七
○ 己의十一
● 庚의十一
○ 庚의十
● 未의三
○ 戊의十七
● 丁의十七
○ 子의九

蔡極文氏評曰 白[illegible]의十九는 自備策이어 分明하다 만일 黑이 癸의十九로 除하면 劫을 避치못할것이어요 黑丙의十六도 後解를 豫防하는 明證이나 白이 乙의十七로 連點을 置하고 丁의十七로 列着하면 戊己十八黑二點은 白에게 提供하고말것이다

にきびとり美顔水

여드름 부에 第一良藥!

여드름·부룸·에第一等가는良藥입니다、여러가지藥과方法에失望하신분들은 이藥의効果만은 반드시滿足을느끼실것입니다。

벼룩빈대等의毒虫으로가려울時

벼룩·모기·빈대·진드듸이等의毒虫에물녀가려울때에 이藥을조곰 부치면不愉快한病症과가려운症은이친드시解消됨으로重寶와 갓습니다。

美容藥으로써!

入浴後와洗面後에使用하면爽快하고、여드름·부룸을防止하야 살바탕으로부터 美麗하게합니다!

낫에기름도는분、빗히지못한분에 第一等의水白粉!

△特別化粧力

이水白粉의獨特하고優秀한美容成分과微妙한살빗의作用으로、낫빗이허지못한분과낫에기름도는분에、속살부터美麗하고사美한化粧美를나타내게됨으로大好評!

肌色美顔水

七月十九日부터晝夜四日間!! 料金[illegible]上三十錢[illegible]下二十錢均一 낫一時半 밤七時四十分始映!! [illegible] 吉 [illegible] [illegible]作品 監督:[illegible] 撮影:[illegible] 主演:[illegible] 어린여섯[illegible]의[illegible] [illegible] ◇사마엑스그레-早[illegible] 全[illegible]日本版 게이리지[illegible] 구로-데-[illegible]主演 名[illegible] 怪奇 五百年後의地球 ◇米國[illegible]全[illegible] 西部大活劇 無宿의猛群 템막코이氏主演 [illegible] 桃花劇場

七月二十日부터名畫再[illegible]週間! 파社超大作全發聲日本版 巨匠[illegible]스바-[illegible]氏大作品! 最後의駐屯兵 케리-그란트 가도루-도마이챌 그로-도레인스 主演 太都映畫社特作現代篇 [illegible] 戀は海邊て 吉村操氏監督作品! 島田文郎、大岡[illegible]、伴淳三郎、琴路美津子 主演 東活映畫超大作時代劇 後藤岱山氏監督作品! 三千世界膝栗毛 月形龍之助 阿部五郎 主演 大[illegible] 紅い雪雨の殺人透明光線は[illegible]なぜ 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十七日ヨリ五日間 晝夜三回 入替無シ ▲透明光線 ユ社 ボリス・カーロフ・ベラ・ルゴシ主演 ▲アドルフ・マンジュウ・リエッサ・ランデイ主演 舞臺に立つ妻 パ社 ▲ノケンの青春醉虎傳 P・C・L 丸山定夫・千葉早智子主演 L・C・P P・C・L映畫と 高級洋畫 大人五〇 學生三〇 若劇

七月十八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 午後一時半 六時半)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無說明 ◆R・K・O・라듸오超特作映畫 世界的歌手 리리폰스主演 戀歌 (I Dream too Much) 今夏代表的音樂映畫이以上더훌륭한世界的쏘프라노의歌唱을드를수업다、[illegible]姬子女史日、몃번봐도실증나지안는映畫、藤原義江氏日音樂映畫中의最高位에슬것이라 쏘프라노의무서운魅力 ◆R・K・O・라듸오超特作映畫 深夜의별 (Star of Midnight) 윌리암포엘 진자로자쓰 主演 포엘파로자쓰의名콤비再會!무더운여름날밤에시원한時代劇 ◆日活超特作映畫 リングの王者 (大都[illegible]三日封切) 榮の[illegible] 人形の [illegible] 카와하나、百[illegible]의[illegible]、[illegible] 음아는音樂、새벽나의行狀記、[illegible] 歌[illegible]、어느女子의一生、情熱의별바、片道[illegible]、뜨꼬부、青春의바다、映畫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隨筆 어름風景 (하)

秦貞植

◇森林

여름森林에 들어가면 鬱蒼한 樹[illegible] 壇內는 한낮에이나 비어엇섯든듯이 [illegible]하고 [illegible]여 지다 예날 [illegible]여든 엇저든 그때로 곤차서 [illegible]도 쓰는 욕을 한 개와집이 지붕 그늘속에 끄윽 배커잇다

그어프로 반[illegible]한 [illegible] [illegible]式 罕 그대로의 [illegible]가 두개 나란히 노히엇다

東軒 앞마당에는 두라가 여섯間이나되는 느티나무가 [illegible] 들어안저 커-다란 그늘로 마당을 가진 다 덜고잇다

새[illegible]는 엽사귀 욱어진 「사구라」나무가 一列로 쭉 놓여섯다

이 바에는 내가 [illegible]하면서 심은놈도잇기는잇스나 어느나무엿섯는지 [illegible] 알수가업다

넓은 [illegible] 커크고 그놈들은 포푸라가 [illegible] 서서잇다

따가운 햇볏치 땅에서 反射되여 눈이부시다

校舍의 처마에서는 참새들이 제멋대로 지저귀며 날고뛰고한다

[illegible]나무에서 서로[illegible]가 바[illegible]지내듯이 시르르- 울다가마다

[illegible]게 조용하다

어데지 老人이 [illegible]을 들고 그늘에 안저 졸고잇는[illegible] [illegible]소리가 [illegible]게 울려온다 [illegible] 짓는모양이다

어느구석에서 나왓는지 곳을 흘리는 아이들이 한떼 몰려간다

[illegible]는 [illegible]여서 이제겨우 한나절다 이해가 지저면 몃百年은 [illegible]할것갓다

×

[illegible]에서 외인편으로 안[illegible]저가 [illegible]나무를 [illegible] 갈나무가 [illegible]해서 「갈나무골」이다 대추나무도 [illegible]다 그보다도 [illegible]을 [illegible]고잇슨든 대술에 확도 무성해섯다

그러나 서방은 대술도 [illegible]나무도 다업서젓다 옛집도 [illegible]에 새집이 들어섯고 자최가업다

그전에서 살든 내 동무 「[illegible]」! 그를 생각하면 나는 東京의 大[illegible]를 回想하고 눈을 스르르 감는다

「갈나무골」에는 [illegible] 남고 主人은 [illegible]로 잡히는 [illegible]이 [illegible]들이사랏다 그래서 [illegible]에 저러케 폴근 [illegible]스의지방이 [illegible]

그것을 [illegible]다 [illegible]려 팽나무가 우둑하니 바라다만 보고잇다

×

나는 [illegible]들면 [illegible]에 버되고 안저엿슬 東軒으로 올라가 아이들의 [illegible]을 모아노코 드러누엇다

二十年……二十年前에는 나도 여기서 [illegible]를 [illegible] 저-기 [illegible] 어도 엿섯고 그바께 다[illegible]들도 엿섯고……

그때 二十年에 어떤[illegible] 나갓는저 나는 [illegible]가 아니[illegible] [illegible]

그는 나보다도 [illegible]다

나는 어[illegible]을 [illegible] 잠이 깨여보니 해가 [illegible]을고 그[illegible] 레나스코-[illegible]는 라켓에 [illegible]는 소라 종 한가롭게 들려온다 (끗)

學藝

文壇雜感 (一) 倦怠에지친近來評壇

朴英熙

自己가 所持하엿든 信條에 不足함이 잇고 或은 缺陷이 잇게 될때에 그는 勿論 보다더 眞理라고 생각하는 다음階段에 을나서게 되는것이다。그런데 이곳에 問題되는것은 한사람이 自己의 信條가 달러질때에 그

……影……響이나 運動이 直接으로 民衆이나 社會에 害되는때에는 그 位置變換의 價値規定이 勿論 새로 論議될것이나 作家에 잇서서 그 人生觀의 變化는 作品이 民衆에 미치는 精神上 影響以外에 아모것도 업다。그런데 이 精神的 影響이라는것은 作家의 信條가 달러진다고 해서 반드시 惡影響이 잇스라는法은 업다。오히려 完全한 眞理를 探求하야 드러가는 동안에 前者보다 後者가 더욱 조흔 結果를 내는수가 만타。林君等이 絶叫하는 바와가티 唯一無二한 眞理로 생각할수는업다。

眞理를 사랑하는學者들은 現在에 가지고 잇는 自己의 信念에 缺陷이 생길때에는 지금까지의 自己의 著作을 몃번이고 再出發을시작한 例가 또한 만히 잇섯다。그러나 上記한諸氏가 생각한것이 自己와 相異한것은 모다 俗惡하다고 斷定하는것은 偏狹한 態度로 생각하지 아니치못할지나 그러타면

……文……學史家는 文學史를 編纂하는대신에 그들의 家譜를 作成할것이 맛당하다고 생각하게되다。

適當한 古今과 複雜한 人生生活의 物質的及 精神的發展과 그要求에 따르는 여러가지의理想—眞理는 亦是 眞理? 卑劣하고 平易한 安價의것은 아니다。

그런까닭에 『眞理는 어느때나 잡을수잇고 또한 永遠히 잡지못한다』는 말이 만혼經驗에서나온말이거니와 그러므로 眞理의 探求者는 長遠한眞理를 찻기에 一生의 정열을 얼마나 犧牲하엿는고!

四五年동안 朝鮮에서도 『創作方法』이 四五차레나 變하고 不絶히 새로운것을 創案하엿스되 그것에 適合한作品은 보이지 안헛다。그것을 好意로 생각하면 不絶한 眞理의 探求이라고 할지나 事實말하면 文學은 時代的이기는하나 決코 政綱的反影은 아니다。

……全……幅을 보려는 作家의 準備는 이러한 人生行路의 俗見에서 떠나야겟다。

그런데 近間에 우수운 [illegible]이 생기는것이 나로하여금 어[illegible]을 쓰게 하는것이 엇스니 [illegible] 金斗鎔 安含光 其他 左翼評論家諸氏는 作品이 업스니 말할것이 업거니와 林和君의近間의評論은 그의主張이고는 아조 距離가 먼데 자미잇는 君의 心理가 硏究되어진다。

君의 評論은 [illegible]하고 [illegible]的이나 그의 論은 强하고 思想的이듯 하다。그의 詩는 精神的이고 그의論은 物質的이다。그의 詩는 情緖的이라면 그의 論은 生理學的이라고 말하고십다。「人生」을 [illegible]하는 君의 心境의 苦惱를、지금 내눈아페 보이는듯이 어떠한 幻影이 나타나고 잇다。

言行一致가 어려웁기는 하나 論과 作品의 差는 이다지 甚한 모양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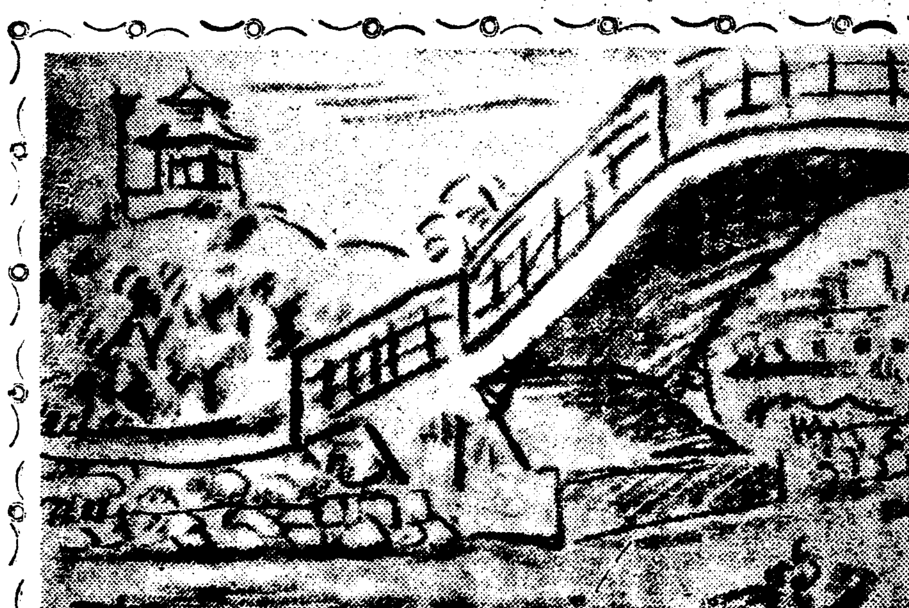
그는 그리고 近間에 所謂轉向派에 關한 批判文中에서 보면 여러가지의 論難이 만타。일족이 나의

……聲……明書的論文에 하文學史的 意味에 一一[illegible] 接觸하야엿거니와 文學이라는것은 人生의 生活의 諸表현를 構成하는 同時에 人生의情緖의 審美的要求에 [illegible]지 안흐면 아니되다。文學이 아모리 社會的功利를 助長하는 理想的作品이라 할지라도 그는 唯物史觀이나 經濟學이나 政治學이나 아니다。

내가 일즉부터 말하는것은 文學의 本道를 意味함이다。그러므로 作家는 拘束업는 生活態度에서 人生의 各種의 生活 [illegible] 업슬수업슬것이다 [illegible]의 豐富한 自然을 [illegible]슬것이다。局部的이 아니고 全面的 觀察이 可能할것이다。그러고 物質的 要求에서 精神的을 [illegible]할수엇슬것이다。生을 [illegible]한 아이데올로기의 [illegible] 觀念을 [illegible]하는 過去의文學的過誤는 [illegible]이엿다。眞理를 사랑하는 作家나 評家로서 이것을 過誤로 알게될때 [illegible]하고 새로운 文學의 本道를 차즈려함이 當然한 일이 아니면 아니되다。

異國情趣 (二) 於哈爾濱

宋政勳



公園

春秋가짧은北滿의氣候、哈爾濱의여름公園 北滿을조이는 陽光이 綠葉을빛에비치엿을때 散步조화하는로서아老少男女 거리로 江邊으로 公園으로進出한다

三三伍伍一家團欒의 모임에 키큰게집아이 하이힐도가볍게옴기며 感드돈새이에사랑속삭이고 漫談式에서享樂은밤중까지 繼續된다

이것은 埠頭區의公園一景白樺木으로 멤든 小亭子이다 哀처비치는 綠葉에 新熱한陽光을 避은그마음을誘惑치안흘수업다。

存在의辯護 (五)

—人間과그自己限定에關하야—

金基錫

사람들은 時間을 넘어서는 엇던 久遠한 實在란것이 잇다고한다。이 이른바 久遠한 實在가 宇宙의 어느구석에 잇는지도 모른다。그러하야 이久遠한 實在란것이 움직이는 것의 世界를 支配、主宰、攝理하고 잇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意味의 實在를 存在의 世界속에서 發見할바이업고 存在의 世界란것이 時間을 버서나서 構成된다고는 想像할길이 업슴에 어디케하랴。時間을 버서나는 超越的實在、사람들은 오랜동안을 이理念에 부잡하야왓다。그러하야 오늘에 이르러 이理念을 그

와올때、우리들은 그것에 向하는 一種의 鄕愁조차를 자어내게되다 사람들은 依然히 이久遠한實在를 憧憬한다。여기에는 분명히 사람들을 그러케만드는 어떠한 갈피」가 업서서는 안되다。人間이 思惟는 알만해도 이存在의世界、時間의世界란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바로와오지못한것이아닐가。그들은 存在의世界를 時間의世界로보기는보앗다。그러고 時間의世界를 流動의世界、轉變의世界로 보기는보앗다。그러나、이時間性의世界란것을 단순한 꺼지는世界、사러지는世界

에말은世界로 보아버리는것이 안닐가。그러하야 어떠한世界의有限에 엇떤거픈 世界가엇서야 한다고보아 時間을 넘어서는 久遠한 實在의 世界란것을 [illegible]하거에 어룬것이어니가。여기에 잇서서다。우리들이 人間을 時間에잇서서 주어진다고 본면서 [illegible] 거피反省하야한다는것은。時間은 [illegible]。[illegible]은 단순한 [illegible]은아니다。[illegible]은 사러지는것이면서 다시나타나는것이 아니면안되다。[illegible]은 잇떤것을 죽이면서 다시 그것을 살리는것이 아니면 아니된다。[illegible]은 말의가장 [illegible]에 잇서서 生成을 意味한다。진실한 [illegible]은 [illegible]的方向에 잇서서가 아니라 [illegible]的方向에잇서서 생각되지안허서는아니되다。

우리들이 時間의 지실한性格을 외온다고하랴。運動의 지실한性格을 외온다고하랴。그때、우리들은 어存在의世界란것을 단순한 꺼지는世界、사러지는世界 그리하야 우리들이 그곳에서버서저나와야하는世界라고는 보지안는다。

存在의世界。時間의世界、運動의世界。이것이 우리들이 버려야할世界가아니고 그속에서 용소슴처흘러야할世界엿야、우라들이 따로 엇떤久遠한世界를 그라울줄이잇스랴。人間이 時間에잇서서 주어지는것이 엇던애달븐運命에 매이는일이아니라、한개의마당한世界속에 드러서게되다는것을 우리들은 人間의思惟의 이름아래서 세차게 宣言하지안허서는아니되다。

오늘의사람들은 實在아닌것을 觀念、觀念아닌것을 實在라고가르친다。우리들은 實在란것이엇고 觀念이란것이잇다는것을 否定하지는안는다。그리고 觀念이란것이 어데까지던지 實在의模寫、反映에지나지 안는다는것을 否定하지는안는다。여기서 우리들은 분명하 觀念論과소매를난호다。

모도를 實在또는觀念으로뿐보는態度。우리들은 먼저 이態度를의심한다。모도를 분명히 實在 그러치안흐면 그것의模寫인 觀念에 그치고말것인가。『칸트』는 直觀의形式이라고하야 時間과空間을엇고 悟性의範疇라고하야 關係니樣相이니를들엇다。

사람들은 여기서 『칸트』의 觀念論的見解를보면서 그構成主義的認識論을엇는다。그러나 『칸트』를 그들자신의엇던새로운立場을 가지지안허서는 안되다。

現實主義는 時間이나 空間이直觀의形式이아니라 본래 存在의形式이라고가르친다。그리고그것이 直觀의形式이되는것도 먼저存在의形式인때서 『번역』되는것이라고가르친다。存在의形式으로서의 時間과空間。이것을 우리들은 단순한無로볼수는업는것이다。그러라고 이것을 存在 또는觀念의 로볼수는업는것이다。時間을 바로理解하기위하야 우리들은 그것을 存在의性格의 世界속에서 보아야한다。存在를 그근본「엇물」에잇서서 바라볼때、우리들은 存在와함께、存在의性格이란것을엇으게되다。

우리들은 人間이 時間에잇서서 주어진다고보앗다。時間은 보다한 運動、보다한 變化를 가져온다고보앗다。그러나 人間의存在를 [illegible]에잇서서 바로생각되어야 한다고보여지는 이時間이 무엇일가。우리들은 人間의存在를 어時間性의 本質에잇서서 거피反省하지안허서는아니되다。

讀者社交室

▲小生은 今年二十一歲이온대 어렷슬때부터 그림에 취미가 잇서서 지금까지 各方面으로 헤여 보앗스나 가난하고 어찌쏘면 배워지는지를 못하야 큰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헛세월을 보내습니다 畫家門生이 되여서 工夫하고 십습니다 황송하오나 讀者社交室을 通하야 下敎하여주십시요 求畫 丑生

▲再昨年仁川을떠나 羅津으로 成功의 希望을 품고간 나의 親愛하는 金翼男君이여 至今은 어데서 무엇을 하는지 速히 住所를 알으커주게 나는 游園株式會社에 가 잇는 親舊일세 或讀者諸位中에 金君의 方行을 아시는분은 通知해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仁川 궁금生

▲社交室을 通하야 讀者諸氏께 問議합니다
一、李光洙作 再生 革命家의 안해
右記兩書籍을 讓渡하실분은 누구시든지 本欄으로 通知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開城 李桃成

▲羅津金應澤氏께 醫專 中央病室에서 金氏의 書信을 자조맛고 또한交換을 하엿스나 退院後數次편지를하여도 아모消息이 업스니 엇지된曲折이오? 前의金氏가 그곳某와 大連에가신다드니 大連으로가셧나요? 速히 通知하여주시요! 讀者諸氏께옵서 아시는분이게시오면 社交室을通하여 下敎하여주옵시면 大端感謝하겟나이다 江原道平康郡平康面福溪里 (咸典)

▲本報에 連載되는 韓雪野氏作 『黃昏』 一回分부터 七十四回分까지 오려下記住所로 보내주시면 大端感謝하겟사오며 大學出版部版 坪內逍遙氏譯 (쉐쓰파어)의 『로미오와쥬리엣트』 一部 拜呈하게습니다 京城府東崇町四番地 李喜景

▲平壤에게시는讀者여러분께올서 金元烈女史와 住所을아시읍거든 下敎하야주심을 拂望하나이다 金女史는 閭島龍井村에게시다가 四五年前에 上京하얏스리라고 豫想됩니다 市內初音町六九 李相文

▲友人의 [illegible] 事業하고 [illegible] 가지고[illegible] 事業에 趣味가잇서 [illegible] 硏究에 努力[illegible]는者가잇사오니 [illegible] 諸位와 [illegible] 여보시기를바라나이다 [illegible]

市內[illegible]町一〇八 金[illegible]
▲누구시든지 [illegible] 가진분이게시거든 小生에게 [illegible]하야주시요 江湖에 [illegible]硏究家 諸兄姉 相互通信往來를 바라나이다 市內[illegible]町金[illegible]氏 [illegible] 明白히 社交室로通하여서나 下記住所로通知하야주옵소서 東海中部線[illegible] 丸一[illegible]店 [illegible]

連載野談 (六九) 布袋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북을찟는그칼 (十三)

호동왕자가 엇기도 어려운 두가지를 가저。빼려기도 어려운 두가지를 죽엄으로써 영영 어저버리려고하얏다。

그런데 뜻밧게 공주가 문을 여러재키고 내다보는 얼굴을보자 그여운 자태를 그대로두고 죽기가 차마 아깝고 또는 공주가 잠을 일우지 못하는것이 분명코 자긔때문인것을 짐작하매 떡이나 안타가웟다。

『내가 이제 그북을 찟지려는 칼로 내목숨을 끈허 죽는다면 우선 아바마마께 대하야는 큰불효。조국에 대하야는 큰불충。그리고 공주에게 대하야는 무엇이라할고 살상은 공주의 거른 뜻을 모르느니。』

하며 호동왕자는 기둥뒤에서 공주를 바라보든 그두눈을 실으르감고 먼저 대무신왕께 대한것、고구려나라에 대한것、공주에게 대한것 그세가지를 차레로 생각하야엿다。

그러나 그세가지 생각중에한가지도 업는 조흔 방침이 나서지 아니하얏다。

그리다가 다시금 공주를 바라 보앗다。

공주를 바라보는 그때에는 아무것도 생각키지를 아니하고 오직 볼수록 보고만시픈 마음이 터욱 간절하얏다。

새벽 바람이 고이부는 그바람끝을 쫏차 공주가 입고잇는 히고도 보드러운 자리옷 자락이 펄렁거리는 그 펄렁거리는 자리옷자락의 문의는 마치 물결이 밀리는듯하얏다。

어때 호동왕자는 그 자리옷자락이 날리는 틈에 혹시 그안에잇는 흰살이 내어다 보일가 마음여 조마조마 하야지며 도리혀 조심성이 생기엇다。

『사람의 일은 크고 적은것을 물론하고 살어서할것。그러케니 내가 뜻하엿든 과이코 일우지면 살어잇서야할것。살어잇는날이면 어느때든지 반드시 평생배필을 마저야할것。그러타면 저공주를 버리고 또한 어듸서 저 련미인을 다시 볼고?。』

하며 호동왕자는 역시 평생배필을 정하라면 공주를 버릴수 업는것으로 생각하얏다。

호동왕자의 그마음은 공주가 호동왕자를 버리고는 평생배필을 정할수업다는 그마음과 꼭 가릿다。

그런데 호동왕자가 맨처음에 공주와 인연을 맺즈려든것은 다만 어떤 수단으로만 매즈려생각하얏다。

그러나 공주의 어엽뿌고 착한 마음씨의 정지로만한 그태도를 보고 또보는 동안에 그런 어진처녀와 다만 한것수단으로 인연을 매즈려는것은 큰죄악으로 생각하얏다。

그럼으로 이제 공주와 백년가약을 맷기로 작정한다면 그부에 대한생각、그라팔에 대한생각을 다빼버리지아니하면 그것도 역시 죄악으로 생각되엿다。

『아아。안해된자는 효도를 못하는법이며 안해된자는 충성을 못하는법이란 말은 예로부터 도지못한말。그러커늘 내이제 저공주를 안해로 마지한들 추효에 억은날것이야 업겟지。』

하며 호동왕자는 필경 공주와 백년가약을 맷기로 결심하고 다시금 공주편을 바라보앗다。

그러나 어듸로인지 공주의자태는 살어지고 보이지 안헛다。

호동왕자는 이때 부러 날이 더듸 밝는것이 원망스러웟다。

그리고 라랑왕께 실정을 말할 그말의 솜씨까지 이리저리 생각하얏다。

이때!

『왕자! 왕자!』

하고 겨테서 부르고 나서는것은 라랑왕이엿다。

호동왕자는 깜짝놀라 무르한거름 물러섯다。

『어찌해 새벽에?。』

하며 라랑왕은 이상스러운 태도로 물엇다。

『그저 잠이 일직 깨여와서。─』

하며 호동왕자는 겁도나고 무안도한 마음으로 어름거려 대답하엿다。

『그럴라이지。그러나 그 두가지 뜻중에 엇든 한가지를 작정해!。』

하며 라랑왕은 호동왕자를 날카로운 눈제로 바라보앗다。

『두가지뜻!。두가지뜻!。』

하는 호동왕자는 라랑왕이 말하는 그두가지뜻이란 말눈속으로 색임질할새 전신에 땀이흐르다。

『대왕의 겨두심을 입사와 공주와 백년가약을 맺게되오면 생전사후가 모두 복이될줄로 알외오。이제 일즉이 몸을일어 이곳에서 공주전각을 바라보게되온것도 장래 백년해로를 축수하압는뜻。그러하오나 래의에 억은난것은 죄로짜 알외오。』

하고 호동왕자는 라랑왕의 긔색을 살피며 자긔의 행동을까노코 말햇다。

그러케 까노코 말한뜻으로 량야나라 분명 라랑왕이 자긔가 공주전각을 바라본것을 보앗스려라는 생각이엿다。

『공주와 백년가약?』

하며 라랑왕은 호동왕자를 바로보다가 또한 궁두고를 향하야 그찬란한 눈의 광채를 보내엇다。

本社主催全朝鮮學生 美術展覽會規則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會는男女初中等學生의美術에對한奬勵와 그向上을目的함

第二條 本會의出品者는 男女初中等學生에限함

第三條 本會의事務所는 京城府太平通 朝鮮日報社內에置함

第四條 本會는每年一次開會하되 會期와 會場은 臨時決定發表함

第五條 本會는 二部五科를置하되 左와如히分類함

(一) 初等部
(1) 自由畫
(2) 手工品

(二) 中等部
(1) 東洋畫(四君子도包含함)
(2) 西洋畫
(3) 工藝品
(A) 彫刻及細工
(B) 刺繡及編物

第六條 本會에 出品하는作品은本會審查委員의審查에依하야入選된作品만을 陳列함

第七條 本會에出品한作品에對하야는 本會에서 充分히 그取扱에 注意하되 그紛失又는破損에對하야는一切그責任을지지아니함

第八條 本會에陳列된作品은承諾이업시는 撮影模寫又는刊行함을不得함

第九條 本會는 本會의事務를進行키爲하야 左와如히任員을置함

(一)會長一人
(二)審查委員 若干人
(三)實務委員 若干人

第十條 本會會長은朝鮮日報社長이兼하고審查委員及實務委員은會長이委囑함

第二章 出品

第十一條 本會에出品하는作品은自己製作品에限함

第十二條 同一人으로서各科를通하야出品할수잇스되 一科三點以內로制限함

第十三條 그形狀、表裝等의如何를不拘하고同一意匠에依한作品으로認定될時는二個以上으로分離된것이라도一點으로認함 또는同一意匠에依치안하고 二個以上分離한作品이라도 一個로裝置되얏을時는一點으로認함

第十四條 繪畫는 其四邊을 四五米以內로 制限하고 但工藝品은 一邊에對하야四米立方以內에陳列할수잇는者로制限함

第十五條 左와如한作品은 一切受理치아니함

(一) 製作後三年을經過한作品
(二) 일즉이 本會에陳列되얏든作品
(三) 本會에서風紀又는其他關係로陳列에不適當하다고認하는作品

第十六條 出品을願할時는 申請書와作品을本會에서指定한期日以內로指定處所에搬入하되 그期日은別로히發表함
但申請書에는 作品의題名及出品人의氏名年齡、住址、所屬學校及學年別의明記를要함

第十七條 本會에서出品作品을接受하얏을時는即時受領證明을交付함

第十八條 本會에서交付한受領證明의提出을要함

第十九條 作品의搬入搬出의費用은全部出品人의負擔으로함

第二十條 審查의結果 落選된作品은入選發表以後七日以內 陳列된作品은 會期終了後 十四日以內까지 搬出치안할時는本會에서任意로處分함 但入選作品은 朝鮮日報紙上에 限함

第三章 審查

第二十一條 作品의陳列에잇서 그位置及配列은本會의處置에對하야 異議를不得함

第二十二條 審查는 審查委員에依하야行하되 入選과入賞을決定함

第二十三條 審查方法은 各科審查委員의 合議에依하야 審查를決定함

第二十四條 審查의結果에對하야 異議를不得함

第四章 褒賞

第二十五條 入選作品中에서入賞에對하야 決定된作品에對하야 賞品을授與함

第二十六條 入賞은左와如히 定함

(一) 特選賞
(二) 優選賞

第二十七條 特選으로入賞된作品中에서 朝鮮日報社長이 가장優秀한作品이라고 認하는作品에對하야는特選賞에兼하야特히社長賞을授與함

第二十八條 本會入選作品에對하야는 記念品을進呈함

第五章 觀覽

第二十九條 觀覽時間은臨時에發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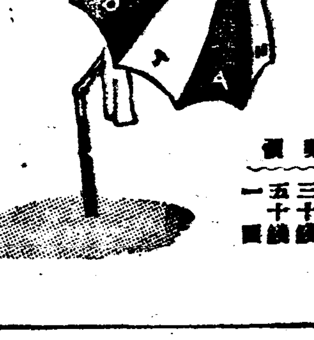
第三十條 場內整理를爲하야入場者에制限을加함

第三十一條 觀覽人으로서의會場의秩序를亂하는者는觀覽을拒絶함

第六章 附則

第三十二條 陳列된作品은 會期中에 一切賣約을許치안함

第三十三條 本會會長이 必要하다고 認할時는 審查委員及實務委員에게 諮問하야 本規則의 變更을 得함



夏節必携藥

炎熱에使用하야 元氣倍加하는獨特한 殺菌力은 豫防藥으로서 使用되고 不時의 急病에使用하야 救急護身藥으로서 奏効하다!

消化、殺菌、救急의 三大藥効를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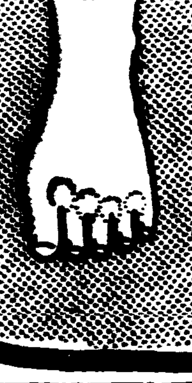
効果本位護身懷中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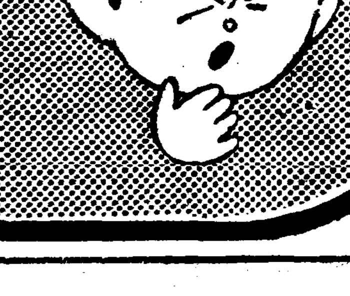
ホウタン 寶丹

◇旅行外出에寶丹
◇惡疫流行에寶丹
◇疲勞倦怠에寶丹
◇腹痛吐瀉에寶丹
◇船車의酔에寶丹

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本舖 守田治兵衛 東京·大阪





皮膚病은何故로難治한가?

皮膚病이잘낫지안는것은 一般의皮膚藥이 水劑로揮發하기쉬워서皮膚深部에서 움즉이는病菌까지 藥効가미치지못하는까닭입니다、ヒンター는 크림狀으로 藥効가持續的으로作用하야 强力한滲透力은 最深部의病菌을죽이여쓰리지안코 아프지안코 內攻치안코 氣分조케治療되는獨特한効果가잇습니다 皮膚病의治療는速한것이 必要합니다 輕視치말고即刻으로ヒンター를試用하여주십시요

定價 ¥0.20 ¥0.30 ¥0.50 ¥1.00
○各地藥店にあり

主効
무좀、버짐、쇠버짐、습진、백납、땀띠、진무른데、부름、물옷、면도독、

一步進한皮膚病藥

ヒンター 힌타ー

本舖 守田治兵衛 東京·大阪

江景地方紹介版

陸港으로朝鮮一
良田沃土 곳업는들판에 錦水鏡湖 감돌고잇서서 玉壺金盤에노힌江景邑

論山郡! 忠南의心臟部로 農産物이豊富하야 每年廿萬石의 쌀이나오는天惠의寶庫라 農業資本이集中하는 큰고을이며 水鄕! 江景이 또한오래된浦口로 湖西의殺倉이니 年二千三百萬圓의貿易高는 모름지이 産業市場의重要都會로躍進하고잇다 不肖抱負와 力量이 地方의面目을如實히紹介할수업는非才요 鈍筆이나 晧政當局과社會各層에서 物心兩面으로 懇篤한指導와熱烈한聲援이잇서서 至重한使命을 맛치게하니 至深히感謝하는바이며 全務碌碌하고 辭論荒蕪하야 實로內容이보잘것업스니 오히려 原意에저바린바가잇슴을 汗出沾背이다 本報江景支局을新設하야 十有五年! 不肖江景支局을經營하기 十三年! 무엇하나 地方發展上에貢獻이업스니 自愧深切하거니와 地方人士의 꾸준한愛護가 別放업게하엿스며 그동안過去十年의變遷은 各方面으로 數字의增大를보앗스니 多幸히地方發展은 事實上의事實이다 錦江治水工事의完成과 紡織工場의誘致等 今後의論山郡은飛躍的으로 發展할것을 約束할수잇스니 文化史上의한後輩으로 先頭에當하야 所任의重한것을 十分覺悟하는동시에 前日의無識을 決코恨嘆치는안는다 이제紹介版內容이不足하고 日字의十餘日을 一지한것을 謝謝하며 紹介版發行에援助하여주신人士에게感謝하다

江景支局 星園生

하기始作하고 明治四十四年에는 벌서近代都市로서의 設備가이것저것되야 人口四千三百餘名에達하엿스며 市區改正을 行하고大正三年에江景邑으로 改稱하고大正六年에다시 指定面이되엿스며 昭和六年地方制實施에伴하야江景邑으로改稱하야現在에이른것이다

地勢及位置

江景邑은忠淸南道의 最南端에잇는 都市로 湖南線大田裡里間의重要驛이라東南部로멀니뻐친 大屯山脈이 連山의秀嶺을 남겨노코 沃野千里를 펼친후에 妙南玉女彩雲의奇峰을點하며 멀드러江景의 장려를 만들엇스니 西北으錦江의 淸流가浴浴히 흘러잇고 東南은 長廣二百五十里의 三南큰들을끼고잇서서 江魚의보잡것은업스되 産米는 每年四十萬石이라 殺倉의 都邑으로 天成한 이땅이아니리오 東經一二七度七分이며北緯三六度二〇分인데 面積一、二六五方里東西의 廣은 二五〇〇米요 南北의長은 一九〇〇米나되는데 京城까지 鐵道로 二二九粁요 大田까지 五六粁이며釜山까지 三四五粁이며 木浦까지 一九九粁이라한다

沿革

江景은 往昔荒凉한濕地一原으로 蘆荻만 萋萋하야 鴻雁이날으고 野鼠가 깃들던 草原이더니 海南鎭州의 兵使牧師가 皇城가는 關路를 完山것지 礪山皇華亭에 이르고 다시公州의 꼽아나루를 건느게되는 三南의 大路가 江을 跨하기二十里길이라 來往하는 行人의발길은 西南으로 뻐치여서 錦山 茂朱 奧地로들어가는 가는사람이잇게되야 길손의酒幕이 손이잇고 保寧 定山內浦로흐나 原에草家三間을 지엇스니 距今三百年前이라 李朝의 中葉이요 그船人의姓은 金氏라後日「소곰장사」는장사하는이 이땅을가리처서 金浦라하엿다한다 正保元年園津浦이생기며 金浦面을 買하야 戶數三百에達하니 近世의市場으로 一大部落이요 드나드는 漁船이絡繹하야 魚鹽의장터로中部朝鮮의商人이 모아들어서 明治三十年一月에는 日本內地人이黃山에移住한者 엿스람이 되는동시에菓子商 石油商이잇게되야 近代의商品이 들어오기까지 하엿다 그리하야 明治三十二年에는 群山港으로부터 小蒸氣船이 來往轉하는중이다

郡內名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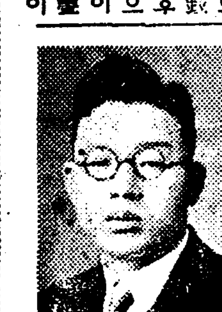
重厚君子風의 素封古豪 金容元氏

江景地方의 素封古豪로 그富名이 湖西에 第一이며 德望仁慈한 聲名조차三南에 떨치는名門『萬人積德의金哲洙』氏는 作故하엿고 그嗣子容元氏 重厚寬容하야 學窓이中東本科에 갓지고年齒弱冠을 겨우지냇스나 史編에專心하야 史學의識見이 만흐며家業에 當하야 三七分의 執賭로서 父祖의 規例를 破하지아니하니 地主의 鑑鑑으로 地方民衆의 稱頌이놉나옵다 論山一郡에서는 陽村名門이라하야 巨儒愼獨齋의 十一世孫으로 氏의祖父心祉金永喆氏는 熙川郡守로宣傳官職에잇섯스며 會祖金光鉉氏는 扶餘無愁洞에서 出生한후齊家之術에 長하야 勤農致産으로 至于今日이니 爾來百數年이라 一家興敗가 一生에도 累璽하거든 連綿四五代에 그德望이 아직도 잇슴은에 오라지不義之財와 殘忍之態이업섯든 報果나 아닐는지 氏또한 寬厚한君子의風이잇서서 氏의田庄을 小作하는 農民으로는 自己집논사는것보다 地主집논사기를 祈禱한다는所聞이잇다 榮泉金哲洙氏는當局에서 實業家로서 表彰을밧고 商工會의 實權을把握까지 바다서 德望이잇거니와 氏의今後態度가 또한 그럴것으로 決코一門의榮譽를一般汚點도 끼치지아니하리라한다 (寫眞은金容元氏)

青年界의儀表로 智德雙全한 高相俊氏

鄕土의人士로 가장무게잇는 高相俊氏는 公私間地方을 爲하야 終是努力하는 中樞人物이며 己未事件爾後 家業에致重하야 儉力行으로 靑年界의 儀表가될만하다 江景邑會議員 消防組頭等의重職을帶하야 公益事業에盡力하며 南朝鮮電氣及江景金融組合等關係를가진바잇고 天賦重厚하야 三藪은勿論竹馬의困境을救護함은 鄕里의聲色을도읍는逸話며 敎育産業方面에 數萬의財物을喜捨하야 萬全을期하는 胸度또한人事를 다하는것으로 地方人士의讚揚이至大하다 江普後援會評議員及學務委員으로 初等敎育事業에盡力하는一方 三友俱樂部의 中堅人物로 兼하야本報江景支局顧問으로 社會方面의指導가잇스니 江景地方의 信望을한몸에밧고잇는중이라하여도 過言은아닐것이다(寫眞은高相俊氏)

圓滿無缺의人 李榮雨氏



三和고무會社江景工場長李榮雨氏

大江景의貿易高 二千二百六十萬圓
朝鮮의大市場으로君臨

옛날朝鮮의三大市場은 一元山 二江景 三大邱의定評이 잇서서 人域의物産이 모도다 이三大市場에서 交易되엿다할도 過言은 아닐것이나 近代文化와産業의發達은 海上航路와 陸地의火車가 天下를통하어서 간데마다 市場은 여기저기都邑을 일우어잇스니 舊日의面目은 全然變遷되고 物貨의交集이 무바귀여서 往昔의覇權을 말할수업다 그러나市場으로서의江景은 沃野千里가 압헤노히고錦水百里가 흘너잇는天惠의地勢라 米穀의移出과 魚鹽의配給이 附近農村의 主要關係를매저서 商業都市로서 日益繁昌하는中에잇슴으로 江景의 큰장은 朝鮮에큰장이되야 四九日서는 한달六장이 每場五六萬人의 장군을 내드러여서廿七萬圓의貿易高를 내이니 모름지이朝鮮의大市場이라 아니할수업다 昨年中의貿易額二千三百萬圓을肉迫하고 잇서서 朝鮮의 一流貿易港을 凌駕하려하는 狀態이며貿易總額中 米雜穀의 一千五百六十萬圓은 大平野部의 農産物을 主로하는 商業都市의 地盤을 가저잇고 肥料 또한 一百二十萬圓의 近者金肥의 需要가 激增한 農村의 一面을 如實히 告하고잇스며 綿布類의 三十萬圓 洋貨、雜貨 三十五萬圓 朝鮮衣服類가 五十七萬圓 生魚 二十四萬圓 乾魚十五萬圓 食料品雜貨等 二十九萬圓은 附近農村의 生活必需品의 消費量이다

自動車交通網

◇忠南自動車會社◇ 忠南自動車株式會社는 朝鮮의紡績所營으로 忠南全道의 自動車交通을獨占하고 豪勢의營業을하고잇는바 論山을中心起點으로論山江景間 一日五回 論山鷄岩間四回 論山扶餘間四回 論山公州間三回 論山連山間一回 扶餘公州間二回 江景扶餘間四回 江景林川間二回 林川鷄岩間의 一回를定期로 運轉하고잇스며 本社는 論山驛前에置하엿다

◇連山自動車會社◇ 連山驛을起點으로 乘合貨物의兩面營業을하는데 連山陽村間一日三回 連山鷄山間一回를定期로運轉하는중이다

衆望의第一人 姜永植氏

忠南道會議員 連山金融組合長 朝鮮産業株式會社專務取締役 陽村永昌農場主인 氏는 當年四十 理材에 長하고 先見의明이잇서서 不運한家勢를 整頓하고 己未前後實業方面에 着眼하야 殖産組合을 創設한후爾來十數年 한번도 失敗업시 發展하엿스니而今에 五十萬圓資本金의 朝鮮産業株式會社는 곳同組合의 後身으로 郡內朝鮮人士의 組織한第一큰會社이며 論山麵子合資會社를 今春까지 經營하엿든바 當局의 方針으로 朝鮮麵子會社에移讓하엿고 다시論山製絲合資會社를創立하야 論山郡陽村面仁川里에 工場을 新設하고 內外로活躍하는 實業家이니 惟忠忠南實業界의 覇王이요 일즉鄕里에 輔仁學校를 設立하고 十餘年間 育英事業에 盡瘁하야數萬의 巨財를 傾하고 當局으로서 敎育功勞者라 金側時計의褒賞을 바덧스며 現在江景公普後援會長으로 잇서서 同校三十周年記念으로 一萬五千圓의 大講堂의 建築에 만흔努力을 하엿스니 敎育界에 또한 至重한存在이다 米穀肥料金融諸機關을通하야 氏의 活動은 자못注目되는바로 前途多幸하기를 自他가 祝福하고잇는바일것이다 (寫眞은尹吉重氏)

大農의 紳士로서 社交的天性과 政治的手腕이 非凡하므로 郡의 發展과 郡民福利를 爲하야 在家無日의 活動家이니 그抱負와 力量이 足히 一郡의 代表라한다 去私奉公의 一貫하는 信念으로 許多事業과 共同의 當하야 萬全을 期하니 安心코 郡民의 信賴는 至大하며 道政議壇에 卓見으로 根氣잇는 活躍이또한 出來하야그聲望이놉고 産業發展에致重하는동시에 製蠶工場의 創業과 蠶業種作의獎勵等纖維工業의 原料供給地로 論山郡內의 山間部開發에 盡力하는중이라한다 小作委員會委員으로 消防水防의 頭目으로 郡敎育會의顧問까지 郡內各種事業에 關係치안는바 不無하야 論山郡의 代表的人士이다

實業界의覇者 活動的人物 尹吉重氏

當年三十八歲의 活動家로일즉論山商業을 大正五年에卒業한후 고무工業界에 進出하야 丸大고무會社의 販賣部主任으로잇섯스며 昭和九年六月에 三和江景工場長으로 着任하야 至今은三和工業界의 第一人으로 自他共認하는 非凡의 人인바 性格이溫厚하야 圓滿無缺한名士로評判이 잇다한다

勤實한篤農家 鄭道烈氏

自少時로 家勢困窮하야 勤勉力作한篤農鄭道烈氏는 平安南道平原郡永柔에서 致富한人士로 當年七十二歲의好好爺이다

豪放한快男兒로 社交界花形 裵榮春氏

論山本町에 巨大한 店舖를 가지고 榮春商會 三和運送店을 經營하는氏는 일즉 明治大學法科를 맛치고 從來 日本內地人이 가지든 論山面長의 椅子를 맛치고 論山面長의 職에 就하야 不偏不黨하는 正大한 政見으로 論山市의 큰 살림을 料理하던 手腕은 貫로 剛直豪放하야 事務에 明晳하고 交際에 能熟하야 論山社交界의 無二한 四十年代의 名士이다 錦上添花로 累巨萬의財가잇서서 米殼肥料商으로 屈指하는 實業家이며 將來多數한 計畫이잇스니 一躍論山의 巨商이될날도 不遠하다하며 政治的所見이 徹底하야 論山의 發展如何는 그關鍵이 氏의 掌中에잇다함도 無理는아닌듯하다 (寫眞은 裵榮春氏)

江景教育界恩人 萬東女校經營者 尹貞默氏

數年來江景地方의 至重한問題로서 三十年의긴歷史를가지고朝鮮女性啓蒙運動의先驅者인私立萬東女學校가 經營困難이되야 廢校의 悲運에이르러 二萬市民의 非常치아니한 걱정을解決할길이 업섯든바 七十高齡의 江景築町尹貞默翁은 斷然 同校經營을引受하고 男子部까지新設케하야 無産兒童을收容케한후 經費一切을自擔하고 快哉快哉! 이事業은 更生하엿스니어찌 江景敎育界의恩人이아니리요 翁은距今二十年前에 龍仁으로부터 江景에移住하는동시에自轉車修繕業을營業하다가 洋靴店을 始作하야 雜貨를 兼營하야 蓄財한것이 數萬圓이라 至今은 오직若干田地를가지고 農事에勉勵하는 老人으로 巨大한財産도 別노업시 素하고 公共을爲하야 時流의 安逸을 바라지안코 閑地에 老驅를 移할생각으로 銀龍山下로 三作年初秋에移住하엿스나 天來의主 見을버리지못하야 家人과 한가지農役을 보살피니 農家의儀表 不遠에잇스리라한다 에 地方一般의 感謝不已한다한다 (寫眞은同校舍全景과尹貞默氏)

敎育界大恩人 林基昌氏

論山郡豆磨面石條里 林基昌氏는 私立新都普通學校의 設立者로每年一千數百圓을 自擔하며 上帝敎의後援으로 六千八百圓의 工事費에서 校舍를新築하고 現在兒童四百餘名의 學徒를敎育하고잇스니 郡內公普校에 比하야 決코遜色이업슬만치 學校施設과 內容을、가지고잇슴은 實로氏의 不眠不休하고 敎育事業에 盡力한功績이라할수잇는바이며 昨春後進에게 校長의職責을 讓하고 上帝敎幹部로 到今은活動하는중이다 本是天安出生으로 鷄龍山新都의迷梁한風說에 蒙蒙한大衆의蒙昧한兒童을敎育함이 最急務이라는覺悟가잇서서 私財를整理하여가지고 豆磨로들어와 即時新都普通學校를 창립하고流浪한大衆의子女를爲하야 心血을다하는敎育界의恩人이다 (寫眞은 林基昌氏)

溫厚한長者 盧奉植氏

論山郡城東面止里 盧奉植氏는當年四十歲의 中年紳士로 天性이溫厚하야 圓滿無缺한 人格者이며窮交貧族에 物質을앗기지아니하며 年中細民生活의 不安을注視하야 그困境에 同情金品을施與함이 一二次가아니어서 附近住民은慈父와가티 敬慕하더이라한다 特히漢學에 素養이만코 靑年에 趣味를가저서 그取藝의珍寶가 相當히잇스며 城東水組合에도 積極後援하야 農民水利에至大한 寄與가잇는데朝鮮産業株式會社 取締役과 論山公普後援等 社會各方面에도 活動하는氏의 前途는多大하다한다

江景實業界明星 藥種商의巨頭 李雲泳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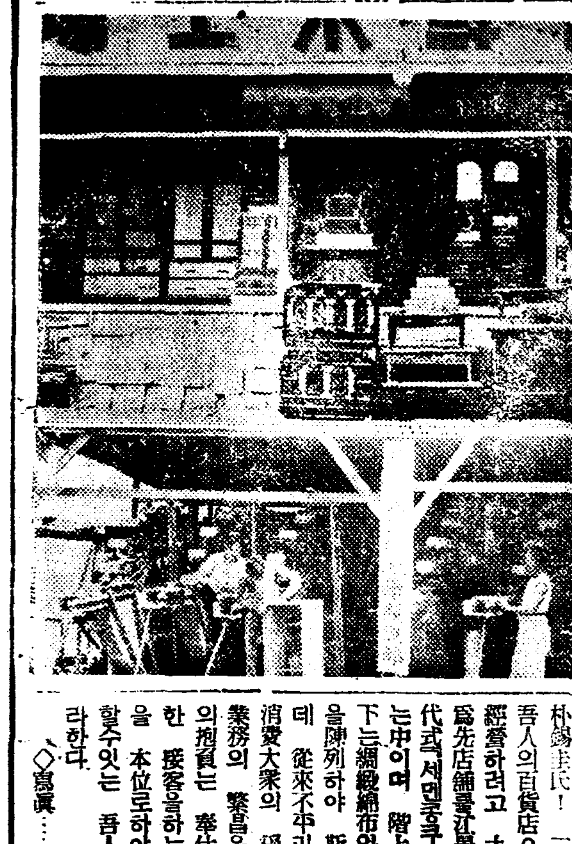
乾材貿易東一堂大藥房主李雲泳氏는京城出生으로 일즉徽文義塾을卒業하고 朝鮮商會에仕入部主任으로 十餘年勤務하다가 昭和七年六月에 江景中町에잇는 東一堂을引受하야 그經營에 當하야 業材精選과 實費販賣를爲主함으로 地方의好評을밧고잇슴은 勿論이요 氏의社交가 能하고性品이厚하야 江景實業家中의 明星이며 業種商의巨頭로 그地盤이 넓고 信用이놉하서 市民各層의 熱烈한支持를 밧고잇스며 江景의實業家團體인 三友俱樂部의中堅으로 活躍하는중이요 近代商業術에長하야 藥種商界에 新人이니 그經營上의方法이 매양驚異와嘆服을가지게하는點이 不少하야 斷然商界를리-드하고잇다 (寫眞은 李雲泳氏)

邑政壇上最新人 氣槪잇는 金容琦氏

邑政에抱負를가진무게잇는 邑會議員! 決議機關으로서의邑會와 議員은 邑民의利害와邑勢의盛衰를左右하는 重要한責務가잇는동시에 新人金容琦氏를 邑會에세운邑民이 또한 賢明치아니하랴 氏는일직 中央大學法科를 昭和四年春에卒業하고 禮山에서忠南製絲株式會社常務取締役으로잇다가 再昨年鄕里인 江景錦町에돌아와 잇는데 政治的頭腦와 社會的識見이足하야 善辯이아니요 多辯은아니지만 熱이잇고力이잇는論調는 邑政上傾聽할價値가잇다하며 不言不語의邑會議員이만흔江景이라고 巷間의非難이잇는點에 斷然氣槪이잇는 新人으로推仰하는바이라한다 (寫眞은金容琦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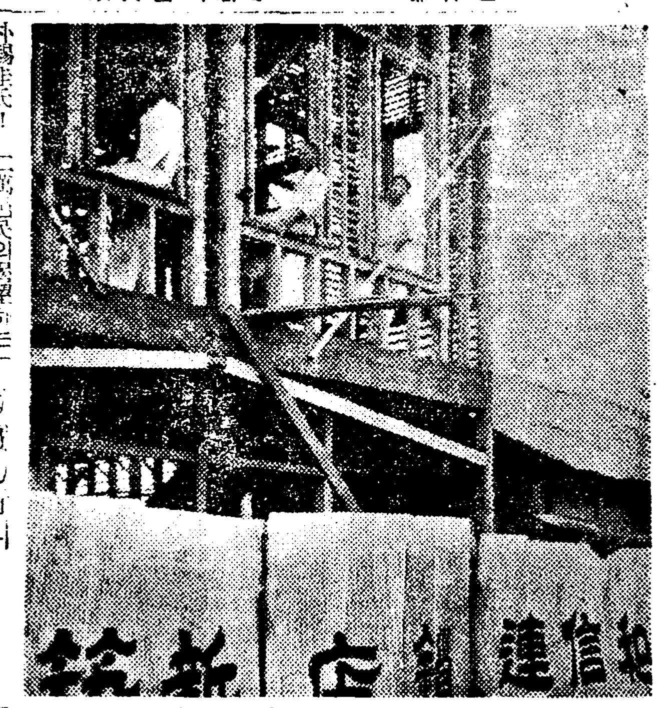
重要商店紹介

木工業의權威 南鮮木工場



江景中町에잇는 南鮮木工場은 木工業의權威로 數十年의歷史잇는工場이니 製品販賣部에는 衣欌과家具가 完備되여잇스며 水車部의南鮮號水車는 釜山의龍安平野와 論山의江景平野며 扶餘의九龍平野에 널리販路를가젓스며 衣欌家具도 大田、金泉、群山、全州等地로 地方注文이와서 同工場의優秀한製品이 聲價를노피고잇다는바 工場主金敬黙氏는 當年四十의活動家라 前途도한洋洋하다 ◇寫眞……(上)同家具部(下)同水車部

歡呼中新設되는 和信連鎖店



江景商街에는 橋田百貨店、小島洋品店、北村帽子店、坂洋品店等이잇서서 日用雜貨를販賣하며谷口百貨店에는 綢緞綿布까지팔고잇서서 雜貨商界는 저들의獨占이되데 三十未滿의靑年實業家朴洙圭氏! 二萬邑民의渴望하든 和信連鎖店을 經營하려고 大金五萬圓을投하야 吾人의百貨店으로 江景下市場入口에 近代式세멘트콘크리-트二層店舖는 赤面新築하는中이며 階下는綢緞綿布와 食料品文房具等을陳列하야 斯界에君臨하리라는데 從來不平과非難을 만히가진 消費大衆의 絕對支持를 바더서 業務의 繁昌을圖하겟다는 同氏의抱負는 奉仕的氣分으로 忠實한 接客을하는동시에 消費大衆을 本位로하야 安心하고 購買할수잇는 吾人의百貨店이 되리라한다 ◇寫眞……新築中의同商店

誠實力行의 中江自轉車店

江景中町通二丁目要地에 美麗한看板을걸친 二層店舖는 赤面職工으로 刻苦勉勵하야 內外顧客의信任을밧고 七八年前에 開業한 中江自轉車店이다 店主朴洙同氏는 少時家貧하야 書校조차 맛치지못하고 轉轉商店員으로 成行商人으로 그날의糊口를하다가 更進自轉車店의 職工으로 技術을練磨한후 顧客의援助를어더서 上記場所에 店舖를 新設하야 今日의繁營을보게되엿스니 三十三歲의 誠實力行 奉仕三條의 店訓을 恪守하야

細民層施療機關 湖南藥局

江景西町을 들어스는 錦橋側에 二層洋屋이 第一着으로 눈에띄이는것이 湖南藥局이다 그主人李南仟氏는 江景道 出生으로 春川高普를 맛치고 다시 京城藥專을 昭和七年春에卒業한 當年二十六歲의 靑年學士인데 處方調劑는 勿論東西藥品을具備하고 安價로 販賣하는바 貧困한細民의 施療는全然無料로하여주며 一般顧客에게 着實한 信念으로對하야 普通市井의 商人과달으니 만흔藥局의 信望은 자못크다하며 將來日의 發展을 圖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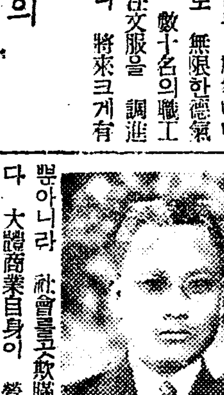
親切誠實한 壽省堂藥房

南鮮에 有名하던 南一堂大藥房의 뒤를이여 江景下市場通에 廣大한 乾材藥房을 新設한 壽星堂은 多年藥業界에 從事하던 崔運聲氏經營으로 圓滿無缺한性格을 가지서 顧客에게조흔 印象을 주어서 來客이 雲集하는 盛觀을 呈하야 日復日 繁昌하고잇다

江景第一類의 新化洋服店

江景西町에잇는新化洋服店은『우리洋服店』이라고 洋服細民의絕對支持를받고잇는 最古의 洋服店으로 人氣가만흔 洋服店이다 裁斷正確實裁優美 品質精選의 特長이잇고 主人李利鎭氏는 不過三十歲의 靑年店主로 그品性이 溫柔謙遜하야 對하는 顧客마다 조흔印象을가짐으로 無限한德望으로도 營業을助長하야 數十名의職工으로도 殺到하는 注文服을 調進하기에 小暇가업다하니 將來크게 有望하다

米穀薪炭商의 二光商會



江景鹽町에잇는 二光商會는新進實業家梁禎朴氏는經營으로 米殼薪炭을 主要商品으로 魚鹽等을 貿易하는데 氏는일즉 東京에 多年留學하야 音樂을 研究한新人으로 江景商界에突然進出한것은 한驚異라하야 斯界의 注目을끌고잇다는바 新進實業家의 今後를매우囑望한다고한다

業務日昌하는 延壽堂藥房

江景下市場에잇는 延壽堂藥房은 大正十六年의開業으로 地方에만흔 顧客을가지고 業務日昌하는바 主人裵榮鎬氏는 親切叮嚀하야 斯界에從事한지二十餘年의老練의人이라하며 同氏의抱負는 左와如하다한다 藥業이란大衆의 生命에直接關係를가진藥品을 取扱함으로 모든事業中에 特殊注이잇는事業이라 藥業從事者는特殊事業이라는見地에서 興産致富의不當한 利益을貪하고잇다면 그職分의冒瀆일뿐아니라 社會를欺瞞하는者이다 大體商業自身이 營利를爲主하는것이매 藥業따라 一般이겟스나 生産消費의媒介的使命을다하야 社會的大理想의實現을 本領으로하야 經濟關係보다 衛生問題에 深甚한注意를要하는 職業이다 그럼으로 藥品販賣는 精選이 母論이요 至廉한價格으로 提供할것을 自負하고 特殊商業의 本領을 다할지언정 이것을奇禍로 私利私慾을 貪하는不當의手段은 絕對警戒할것이다 本店은 以上의見地에서 營業偏重의 精神을버리고 한갓大衆的衛生을目標로하야 獻身的努力을하는것이 斯業에一大使命임을 宣言하는바이다 ◇同藥房主 裵榮鎬氏

製粉精麥의工場 廣信社

江景黃金町에잇는 廣信社는金春開業으로 製粉精麥의 工場을設置하고 斯業에 精進하는데社長朴永裕氏는往年江景實業界에 만히 活動하던人士이다

杏林界의巨星 江景醫院 方奎煥氏

江景의 要路西町一丁目에서 二層洋屋에 外科專門耳鼻咽喉科口腔科專門의 江景醫院은 京城出生으로 大正六年에 醫專을卒業하고 世專外科에서 視務하다가 北京協和大學病院外科에 勤務하야 神妙한 手術과處置에 醫名이中原에 떨치여서 斯界의權威로 一般의期待가 深切한중 南支那廈門市中山病院外科主任으로 拔擢되야 昨年春까지 海外에잇서서 活動하던바 家事의 形便으로 故國에들어와서 農業都市인 江景을擇하야 다시醫業을열고 濟衆施仁의 使命을다하야患者를 救護함으로 江景의外科專門病院으로 그繁華는 日復日盛하갓다한다 (寫眞은 方奎煥氏)

少壯郵便所長 崔鍾仁氏

豆溪郵便所長 崔鍾仁氏(三一)는論山郡光石面五岡里 出生으로 京城中央高普를맛치고 論山郡廳으로多年勤務하다가 實業界에投身하고 論山米穀界에 飛躍하야 慣을 全然獨步하든銳이 不無하드니 無康官海하야 昭和八年三月에 豆溪郵便所를 新設한후 그城은大德郡杞城面鎭岑面과 論山郡豆磨三面을合하고 配達을獨擔하는少壯所長이라한다 (寫眞은崔鍾仁氏)

醫療界의俊才 中央醫院 金頑坤氏

少年時代는神童 學窓時節은秀材로서 鄕里에서는 그天才에 놀내인다는氏가 京城醫專을 마치고 東京에 건너가서 實地硏究를한후 全州에 돌아와 一時壽星堂病院을 經營하다가 數年前江景中町의 第一繁華街를 卜하야 中央醫院을 開業한후 仁厚純實한 天性이 患者家往診까지도 無料로 自轉車를타고 다니며 그治療에當하야 親切誠實히함으로 一般患者는 매우感服한다하며 氏의趣味 또한藝術方面에만하야 斯界의精進이 잇다한다 (寫眞은金頑坤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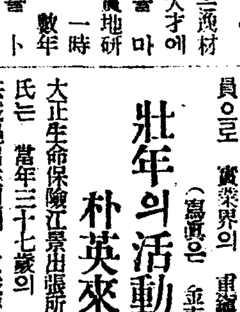
奮鬪로成家한 金相德氏

貧困한 家庭에 태여나서 幼少時부터 雜貨各地하야 人間苦를 모다아는 金相德氏는 大正三年에 江景에 來住하야 一自轉車販賣人으로 數萬의資本을 가지고 洋靴商界의 覇王이되엿다 그理論의 精力과 根氣잇는 意志는 不屈不撓하야 今日의 成功을 보앗다하며 氏의 年齡은 不惑을 지냇스나 將來가 더욱 有望하다한다 (寫眞은 金相德氏)

刀圭界의重鎭 湖南病院 鄭鎭國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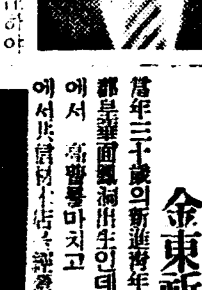
江景地方에서 가장오랜歷史와 가장깁흔因緣을가지고 醫療界의頭角을 쥐인湖南病院은 西町大街에七百坪의 큰터전을잡고 巍峨한洋式巨屋이 輪奐의美를 極한중 數拾個의 病室과 隔離病舍의 設備며엑스光線의 設置等私設病院의 完備를하고잇스며前院長 鄭潤海氏는 眼科의 巨匠으로 그名聲이 南鮮에놉흐며그의 嗣子인鄭鎭國氏는 京城醫專을 昭和五年春優秀한 成績으로卒業한후곳 湖南病院에서 만흔研究와 經驗을어더서 同病院長에就任하고 江景의 公醫와 鐵道局囑托醫及 江商 江普 江小等各學校校醫로 內外信望을 어더서 患者를對함에 誠實히하고施療에當하야 叮寧히함으로 一般患者에게도한 稱頌을바더 감으로

壯年의活動家 朴英來氏



大正生命保險江景出張所長朴英來氏는 當年三十七歲의 活動家로 洪城邑出生인데 京城普成高普를 卒業하고 洪城瑞山郡에 奉職하다가 昭和八年十一月에 入社한後 昇進累進으로 昭和十年七月에 江景出張所長에 任命되야外交에 能한手腕은 日加業績이良好하야 斯界의 第一人者라한다 (寫眞은 朴英來氏)

恬淡精力의人 金東新氏



當年三十歲의新進靑年으로 釜山郡草浦面出生인데 일즉京城에서 高普를마치고 江景大和町에서共信商事를 經營하는바 東奔西走하는 精力家요 活潑經濟한 性格이 社交界에 好評이잇서서 敦『壯漢金東新君』의소리가드러 敎育事業에도 誠意가잇고 慈善事業에도 誠意가잇서서 率先喜捨하기數千金이요 三友俱樂部의會員으로 實業界의 重鎭이라한다 (寫眞은 金東新氏)

農民의慈父 金谷漢氏

國武農場主任 金谷漢氏는 富川人으로 大正四年 仁川商業을마치고 國武農場 江景支部에 就職하야 近二十年間을 終始一貫農民의苦境을 理解하고 同情하야 小作料의 減免과 農事指導에 努力을 다함으로 地方農民은 慈父와가티 欽仰한다한다

法曹界의元老 岡忠孝氏

江景邑大正町 風光조흔彩雲山下에 淸楚한 住宅을가지고 法律事務所를 兼한 岡忠孝氏는 七十老人으로 明治二十二年 東京哲學館을마치고 다시明治法律學校를 同三十九年에卒業하야 司法官으로終始 安州支廳에 奉職하다가 江景支廳에轉勤하야 大正十五年부터 昭和六年初까지 判事로 二十年의 長歲月을 보내스며 本籍을 東北地方秋田縣에 두엇스나 第二의 故鄕으로江景에 定住하고 昭和六年五月에江景에서 辯護士를 開業하엿다는데 英法學의 泰斗로 全鮮에高名한중 萬能에 만흔趣味를 가저서 一家를成한老紳士이며 正六位勳五等의 官等이잇고 辯護事務에 親切하고 精密한用意로 氏의 代訟을하야 信望과德望이 자못크다한다

溫厚長者인 李英九氏

江景大和町의 李英九氏는公州出身으로 嚴正溫厚한 人格者이며 方에서 累代名門의出身으로 東洋道德을 崇尙하야 君子之風이잇슴으로 鄕里의敬仰이 一般이라한다 子로서 그奇行은 郡內의欽仰을 밧는바이다

連山의重鎭 李大植氏

連山邑內에서 代書業을하는 李大植氏는 連山의 重鎭으로 金組의 評議員이며 朝鮮産業會社의 取締役이요 私財數萬圓으로 金融業界에도 相當한 勢力을가진人士라한다

刀圭界의俊才 天誠醫院 郭海鳳氏

論山醫療界의 至寶! 郭海鳳氏는 錦山出生으로 일즉이 全州高普와 京城醫專을 昭和六年에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한후 鄕里天誠病院에 一時勤務하고 昭和六年에 論山旭町에서 天誠醫院을 開業하야 오직誠實로本位로 一般患者에게 治療를 極盡히하고 天性寬厚하야 社交도한 各方面으로 圓滿함으로 業務는 繁昌하야 郡醫업혜다三層洋式의 近代型建物을 方今建築하는중이니 이것이 落成되는 날은氏의 敏腕도 可히 짐작할것이라하며 公私間論山을 爲하야 도한努力하는바 不少함으로論山의俊才라는 高名이잇다

有望한鑛業家 朴順圭氏

銳利한 觀察力과 深遠한思考性이 氏의全貌라하야도 無妨하다 이靑年有力家 朴順圭氏는 龍安出生으로 數萬의財産을 가젓스며 爾來農場을 經營하여오던중 農民의 慘狀과農利의 薄함을 보고 昭和九年秋에 農村生活을 拋棄하고 土地를 賣讓하야 鑛業界에 着眼하고 茂朱 錦山 沃溝 金灘等全北의 金山을六七個所 占有한後着作業을하고잇는 猛將으로 斯業界의 明星이라 前途가 洋洋하다한다 (寫眞은 朴順圭氏)

安分의奇才 金瑄洙氏

株式會社三益社專務取締役이요 鷄龍農場主인 氏는當年三十五歲의 靑年紳士로 大正十三年日本大學 社會科를 卒業하고 全州京城地方에서 實業에從事하다가 江景에三益社를創立하고 實業方面에一段의飛躍을하는중이며 社會機構의 積弊를 一掃하고 新規의農場을創案하야 論山郡陽村面仁川里에서 地主와作人의間隔업는經營方式으로 此를指導하고잇서서 嚴酷하고 溫慈한風度에모다警服을하는 人士이라한다

刀圭界의俊才 至誠醫院 金憲植氏

論山의繁華街! 本町通에서 二層洋製의至誠醫院을經營하는 金憲植氏는 일직 京都大學醫科를 大正十五年에卒業하고 東京大學病院에서 臨床研究를한후 昭和八年秋 同醫院을引受經營하는바 醫功이卓越하야 그妙方에嘆服하야 患者每日逐至한다는바 內科의權威라하야 自他가稱頌하는바이라한다 (寫眞은 金憲植氏)

産婦人科彗星 三光醫院 朴仁守氏

江景西町邑事務所前의 三光醫院 朴仁守氏는 郡內醫療界의 少壯派로 일즉大邱高普와大邱醫專本科를卒業하고 群山道立醫院産婦人科에서 多年臨床研究를하던중 江景人士의渴望에依하야 再昨年江景西町에서 三光醫院을開業하야 産婦人科의彗星으로 婦人科患者를獨占하고잇는現狀이라한다

樂天主義의 金容奎氏

世不利今여 人事에關心을 가질것이다는 樂天的見地에서 露落洒脫한好男兒가 江景에잇스니當年三十歲로 德門金哲洙氏 令息容奎氏이다 遺産分財가적지안코 나 錢穀의出入은問外로하고 近隣細民의 救恤도窮節마다 實中知己와 談論도時節마다 野俗한

適才의論山面長 尹胄炳氏

四十當年의 活動家尹胄炳氏는頭腦明晳한중 天性溫厚하야 面政에格勤勉勵함으로 그德化가오르저 九千市民에믯처서 論山의發展은 크게 囑望되는바가만타하며 上水道의計畫施完과 農業實修學校의 五月一日創立을보고 五萬圓의工費로 下水溝工事를實施하야 築町一帶에 七千圓工費로이미着手하엿스며 市場區域의擴張을爲하야 河川埋立을計畫進行하는중이요 攝動街道를改修하야參詣客의 便宜를도으려고 道當局에方在認可申請中이라는바 그非凡한活動에 市民一般은悅服協贊하야 論山의將來는 有望하다한다

大江景建設에 着着計畫進捗
江景邑長 千坂雄左衛門

朝鮮에서 가장오랜歷史와由緖가잇는浦口! 江景邑은近四五年동안에 躍進的發展을하는中에잇다 人口一萬七千과 戶數四千三百에達하며 貿易額이二千四百萬圓에及하는 總히 邑民諸君의努力이라고 보는同時에 約十年前에比하야二十九割의膨大이니 江景의發展은實로 豫想以上이다 錦江治水工事의完成 朝鮮米倉의設置며各種工場의 出現等이 모다都市面目을 更新하야 平野部의都市로서 萬全을期하고잇스며 邑局의方針도한 大江景의 將設을 爲하야 諸般事業과計畫은 着着進捗하는中에잇다 ◇寫眞은……千坂氏

업친데 덥치는格 稻熱病까지蔓延
비가나려기前에는束手無策
咸南年事에二重打擊

【咸興】함남도의 혹심한 한해(旱害)피해는 이미루보한바어니와 그후에도 가물은 이연계속하야 매일구십도이상의 염열지옥을 일우고잇다

도농무과의 조사한바에 의하면 금번과가튼 가물은 삼십여년래의 초유의대한(大旱)으로서 금년으월부터 칠월상일까지 농작물이 가장만흔비를요구하는 긔간중에 나린우량은 과칠십미리 밧게안되며 전사개년동과 평균우량보다도 이할이부가량이나 격감되엿다

이러케 하늘에서 비는오지안코 구십도이상의 용광로와가튼 뜨거운볏치 내려쪼임으로 이제까지는 물이마르지안코잇슨 벼(稻)도 모다 도열병(稻熱病)에 걸녀 그피해가 상상할수업는정도라고하며 인제더계속되면 대개 고사(枯死)할 위긔에 직면하엿다한다

이 도열병(稻熱病)에 대하야서는 충해(虫害)와가튼것과는달러서 비가내리지안는한 엇더한 방지대책도 업다고하는데 농민들은 의외의근심에달하엿다고한다

興南製鍊所擴張 二期工事着手

【興南】조선개발회사 흥남제련소의 확장공사는 저간주야겸행으로 작업하든바 드듸여 제일기공사가 끗나고 다시제이기공사에 착수한바 래월부터는 전재계획에 겨우사천도파개 소의광석을 일약매주에 수용할수잇스리라하며 그광석의전부가 자가소유광구의 광석으로론 일만톤부터 적극적에입확을강구하게되엿다한다

귀원씨를 망거하야가다는 소작올드튼 동쾌정변한원석(韓元錫)외네사람은 그미는발이처에 경찰에고발하는동시에 경관과가티 사방으로 차저단이다가 큼군든 만철회사에서 주려지대의 건설공사를하고잇든 로동자의 가설가옥에서 유희준을 발견한바 무지한자들이 무수란타할뿐만아니라 코에물을부어서 긔절하는대에는 경박을시키여서 버려두고하야 변사상태에처하야 잇는것을 즉시탈환하야 시내청형정산하(山下)의원에 입원시키고 응급수당을가한다는바 생명이매우 위태하다하며 의사의진단을 청부하야 동지말광정(末廣町)경관파출소에 고소를제긔하엿다한다

水組貯水刻刻減少 間斷給水를斷行
農村人心은極히尖銳化

별항=관북종유의 대한발은 아직도 계속되고잇는데 한류일이 한방울의물도 갓지못하게되여 하개수라 조합중에서 지난구일부터 단수(斷水)하게된 안변(安邊)수조의 이천여정보라면 적은 단수삼일간울지내도록 한방울의 물도엇지못하야 논판은 마를대로 말라버리엿다 인제 이삼일만 더계속되면 뿌리까지 가될지경에 아르럿다는데 곳바가오드래도 소생(蘇生)하기까지는 매우 곤난하리라고한다 따라서 삼팔썸에 춘류수리조합(春柳水組)에서도 십팔일오전열시경부터 저수량이 격감하야 간단급수를하고잇는데 여로인하야 하류방면은 하류농촌민인 문산면(文山面)민들이 수조배수문(排水門)을 파괴하게다고 하는한편 춘흥면민(春興面民)들은 다시이를 방지하노라고 서로대치하야 형세가자못 험악하다 고원(高原)수조에서도 수문감시원과 농민들사이에 큰분쟁을 연출하엿스며(곽보) 그다음 대평(大坪)량덕(良德)수조도 모다간단급수를행하야 수조부측으로 농민들간에 간단업는분쟁이 계속하고잇는 형편이라고한다

拉致當한同胞를 青年들이奪還

【奉天】지난십륙일오후 신업시경에 봉천철서팔조가 동풍유회쇼 뒤에 거주하는 동포가 중국인들에게 랍치되엿는데 그곳청년들이 달려들어 탈환하엿다한다

大山水防團演習

【進永】요사이 련일련야의 호우(豪雨)는 락동강연안일대의 수만주민의 가삼을 조리게하엿다 이러한 본격적우과를 당하야 경남창원군대산수방단(昌原郡大山水防團)에서는 마일의 경우를 예비하야 지난팔일에 대산면일동리락동강사장(大山面一洞里洛東江沙場)에서 실지연습을 거행하엿는데 오전십일시정각에 수방단원이백사십여명과 진영(進永)마산(馬山)등지로부터온 래빈의 참관하에 장쾌한 연습을 마치고 마산경찰서장의 훈시와 래빈축사가 잇슨후 오후두시경 성황리에 폐회하엿다고한다

故人의遺言조차 各機關에寄附

【城津】성진호탕정 고감재수(故高甘在洙)씨는 금지의청년으로 생전에 특히육영사업에 유의하야 인재를 배양하야 사회에 봉사할것을 목표로하야 경성 일본내지등지에 유학을시기는 일방 성진사학교에 다액의 긔부로 그경비를 조달하며 궁민의 생활을 보장하는등 실로 그의 활동이 만혓는바 불행이 득병하야 지난달 별세하엿는데 그의유언에의하야 시내 각교육긔관과 기타공공단체에 분배하엿슴으로 일반은 그의 덕을 칭송한다고한다

尙州女普校擴張에 寄附金繼續逐至
벌서七千圓을突破

【尙州】경북상주 여자공립보통학교(尙州女普校)는 현재 긔지와 교실부족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아동을 도저히 수용치못함으로 이전확장기성회를 조직하고 긔부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야 착수한바 발서 칠천원을 돌파하엿는데 아직도 그긔부금은 계속하야 들어온다고한다

崔權王에게— 二年懲役求刑
言渡는二十七日

【咸興】함흥부 상점에서 공금을 횡령한 최권왕에게 지난번공판에서 이년징역이 구형되엿는데 언도는 이십칠일이라한다

수(朴壽永)씨의 금점중오백원 상부정 상회에서 공금을 허일정오백여원이 돌취를 하여 도피하리라고하니 소식이라하야 피해당은 전과상씨에 가조흔 자가하다고한다

旱災安邊地方에 怪皮膚炎病流行
呻吟患者勿驚四千餘名으로
關係當局에서도頭痛

【安邊】함남안변(咸南安邊)지방에는 이즘 독물성피부염(毒物性皮膚炎)이 크게 류행되여 이병에 걸녀신음하는 사람이 군내각의사의 보고에 의해서만 적으만치 사천오백여명에달하는바 이병의 증상은 처음에는 사지(四肢)에 나흉복부(胸腹部)가 갈착하믈 시개렵기시작하야 글그면글글사록 더개려워지는데 모집다(?) 병에 걸닌 숙근이 몇만치 심한자는 사지나 흉복부만 그리되는것이아니라 오전신에 양종(瘍腫)을 이르키여 갓득이나 무더운 고열에 크게고생하는자들도 만타는바 병의원인이나계통을 아즉 발견지못하고 다만 적당한치료법을 엇지못하고 목하 관계당국에서는 매우 당황하고잇는중인데 치료방법에 잇서서는 응급책으로 위선 중종 환자에게는 『유구로민』이십그람의 정맥주사를 사용하고 경증에는 『아연화(亞鉛化)올레-부』기름의도포로법(塗布療法)을 시행하고잇는데 오래-부기름의 일반로시 강화(江華)지방에서 류행되는 황아(黃蛾)의 은진병(銀疹病)이나 아닌가하야 불안과 공포에 싸혀잇다한다

府營住宅地新設 被逐細窮民收容
近日中埋立工事에着手

【咸興】함흥부에서는 함주군주서면흥도리(州西面興島里)에 일반세궁민들에게 주택지를 줄예정으로 매립(埋立)한이후에는 이들대한 주택지를 개소평균 이십오평식 사십육개소의 부영주택지(府營住宅地)를 건설하려고 계획하야 근일중 매립공사(埋立工事)를 시행할터이라는데 이것은 동부가 근년급증하는 궁민을 위한 공용시설(公用施設)이 매우증가함으로 그에 희생되야 철거하지안흐면안될 일반에게 대부할터이라고한다

忠南道移秧完了
丙子凶年說도解消
空前의豐作을豫想

【大田】충남지방에는 지난십일현재로 이앙(移秧)이 구할오분까지 되엿다 이앙되는 곳에는 풍가량되얏고 이앙할곳은 기보한바어니와 나린비는 금년중음으로만하여 서어앙은전부 완료하얏슬뿐아니라 전곡(田穀)까지 전년에비하야 풍년될것을 예상하고잇는바 병자년의 흉년설도 이로서 해소되여 일반농가에는 가뻐이넘첫다한다

榮州郡의人口 年三千人增加

【榮州】경북영주군(榮州郡)의 사십이방리(四十二方里)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지난칠월현재로 팔만사천여인으로 이것을 작년의 인구에비하면 삼천여인이 증가되엿다한다

坑內의落盤으로 鑛夫一名即死

【長淵】본적을 신천에두고 현재 장연금광에서 광부로 일하든 박영복(朴永福)은 지난 십팔일 갱에드러가 일하든중 오후한시경에 천정의 락반(落盤)으로인하야 즉사하엿다는데 가티 일하든 동료중 김상오는 즉시 밧그로떠들어나와서 사람을 청하야 구해내는동시에 소관장연경찰서에서는 림사법주임(林司法主任)과 조의보의 검시를 마치엿다고한다

拳銃(?)으로威脅 現金을强奪潛跡
長淵署서犯人嚴査中

【海州】황해도 장연군장연면읍내리(長淵郡長淵面) 김경호(金慶鎬)(五〇)씨방에 괴한두명이 침입하여 한명은 문밧게서 파수를보고 한명은 전긔 김경호의 맛아들 한종(二二)씨를 불너이르키여 권총을 내밀고 현금을 내노라고 협박하엿다 한종씨는마침 돈가진것이 업다고하매 괴한은 신체를 수색하야 현금사십원을 뺏서가지고 뒤문으로 도망하엿다 이급보를 접한 소관장연서(長淵署)에서는 아연긴장하야 비상소집을 단행하고 서원을 총동원시켜 사면으로 늘이고 범인을 엄탐중인데 작은도구로보아서 『권총』은 완구(玩具)용이나아닌가 추측된다고한다

巨金橫領店員 奉天에서檢擧
二十日에押來

【新義州】신의주부 초음정(初音町) 금성상회(金星商會) 점원 백영준(白英俊)(二一)은 지난사일 수금한돈 일천오백여원을 안동현(安東縣)에 가지고가서 하빠랑유흥에 소비한다음 어대로인지 방을 감추워버리엿는데 신의주경찰서의 수배수사에의하야 봉천동하하자구(奉天東河河子溝) 문일양행(文一洋行)에 잠복하여잇는것을 그곳경찰서원이 체포하야 이십일 신의주서로 호송하여왓다한다

長淵地方一帶에도 毒黃蛾群이襲來
一般住民은困難莫甚

【長淵】장연지방일대의 한발은 실로 황해도지방에서 가장심하야 일주야내로 비가오지아니하면 곡물이전부고갈될 참상을 일루어 일반은 실로 인심이흉흉하고 전전긍긍하는터인대 업친데 덥친격으로 황아군(黃蛾群)이 습래하여 밤에는 불을켤수가업고 일을하지못하게까지 곤난을당하고 잇는터인데 한번몸에 다으면 몸에가려움증이생기여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데 일반은크게

地方人事

◆金光斌氏(安邊聖潔教會傳道師) 新任人事次本報安邊支局來訪

◆古谷光麟氏(延白警察署長) 新任人事次延安支局來訪

晋州

徐椿氏 經濟大講演

△時日 七月廿五日下午二時부터

△場所 晋州邑第一公立普校講堂

◇主催 朝鮮日報社晋州支局

二百信徒總結束 全部教會를脫退
남은것은빈教會堂뿐
平澤聖潔教會紛糾後聞

【平澤】루보=평택성결교회(平澤聖潔教會) 전도사김광원(金光源)씨를 면직시킨사건으로 신도이백오십명은 이삼개월이나두고 경성본부에 복직을 요구하엿스나 별효과를 엇지못하고 잇든중 또다시 회당문제가 이러나서 본부소유이니 신자들의 소유이니하야 문제가 분분하여 오다가 결국은 성결교회로 귀부한것이즉 본부소유라고 주장함으로 신도들은 물질로든 사비할 필요가 업다고 근물소유권리를 내주기로 해결은 되엿스나 본부와 전신도간의 갈등이 생겨 주일마다 불상사가 이러나서 결국은 신성한 성단이 격투장으로 변하는등 형세는 점점험악하게되며 평택경찰서의 간섭으로 누구를 물론하고 성단의 울력전도를 못하게함으로 신도들은 금월오일에 당지경찰서에 이주일이내로 모-든문제를해결하고 시비와언쟁을아니하겟다는탄원서를 제출하고 그기한이되는 지난칠일 오전열시가 되자 신도가 전부회합하여 우리는 십여년간 신앙하든 이성결교회를 권리와 압박을 바듯수업서서 이교회와 회당을 떠나게되엿다는 눈물겨운 한마듸를 남기고 신도들은 전부박그로퇴장하고 중간파로 왓다갓다하던 남녀 신참측만 널분교회당안에 넓을입고 초조히 잇섯슬뿐인데 전사회에서는 도모지문제가 이러날가하야 주목중이라한다

脫退한信徒들 새로教會組織

별항보도한바와가티 평택성결교회의 분쟁사건은 삼개월을두고 문제가 분분하여 오던중 지난 십칠일은 신자 이백여명이 회합하야 일치단결로 이교회를탈퇴한다고 전부퇴장하야 바로통복리(通伏里)박상만(朴相萬)의창고를어더 수리하고 아즉은 평택교회란 간판을달고 그날부터 이백여명신자들이 모혀 활발하고 신성한마음으로 김광원씨의 긔도를바다 례배를보고 일방교금을 미국(米國)과 경성으로 교회에 교섭중이라한다

試驗工夫偏重 一般學績不良

【釜山】근년가지에 중등학교입학시험난이 격심하야 초등학교에서는 아동교육방침이 주로중등학교입학을 목표로한 학과에만 주력하기때문에 다른 학과는 성적이 조치못하다는론의가 놉하가는데 수일전에 경상남도학무과에서는 이사실에대하야 실지조사를하기위하야 시학사명이 부산시내 각초등학교에 출장하야

江景紹介版(續)
此欄廣告

勝景과古蹟

沙溪舊蹟의 臨履亭

沙溪金長生은 李朝의 巨儒로 曾子之學의 泰斗아니 先生을追慕하야 그遺事를 考究하는 後進이만라 沙溪舊蹟臨履亭은 湖南黃山府黃山之麓에 在하니 江景黃金町主山麓에 古風蒼蒼한 民家의 散間亭子가 잇서서 그湮板에는두렷이臨履亭이라記하엿고 後孫이居住하야 而今은 史家文人이 種種旅杖을 가로노코 俯聞에 依文하야 先生을 景仰할도 寒心한遺跡이거니와 黃浦歸帆이 眼界에 달려들어서 秀麗한百濟風景은 古今이 一般일진대 이를 江景의勝臨라 어찌아니하리요

宋尤菴의遺趾 八卦亭

作亂판이로되야 有心人의눈물을 자어낼뿐이다 亭宇軒雅한데 岩壁과翠松이奇絕하야 心淵氣暢한 天然의景色은 江景에第一이라 後孫宋秉直君이 重修丹靑하야 十數年前까지 亭子에노는 騷人墨客이 接踵하더니 野雀山鳥가모아들어 頹落無境이라 이제는버려든空家로서 아모나들어사는 細民窟이다 江景邑에서는 尤菴遺趾를保存키爲하야 彩雲山公園으로 移建하라는計畫이잇다하나 不遠實現이되는날이잇슬것이어다

鏡湖의第一勝 彩雲山의翠林

金馬의彌勒連岳이 南으로 屈起하고 達山의霧屋秀峰이 北으로 起伏하야 平野一帶의圓城을지어서 浩然한風色이佳絕한彩雲山의遠望은 江景의 第一勝이라 新羅中興後의德恩城趾가 이곳에잇서 대염이새롭고 雙岩寺의晩磬이法門에처량하고 翠林蒼松은 鷗鷺히들어서서 寒鴉들몰으나 二萬邑民의 遊園으로 稱讚을밧는勝區이다

六先生의壇만남은 竹林書院舊趾

古人은 書院을 設하야 經學을 講論하고 斯文의 興隆을하엿스니 李朝儒林의 本源이 實로 書院에잇다 黃山之下에 大菲園을 가진 竹林書院은 八域에 有數한者로 鄕學巨擘가 支接하엿스니 史績에燦然하더니만 大院君이 撤廢케하야 文正公 靜菴 文純公 李退溪 文成公 李栗谷 文簡公 成牛溪 文元公 金沙溪 文正公 宋尤菴의 여섯분先生의壇을 모은터전만이 남어잇서서 蛙草만무성하엿스니 도이는橋廢의

江景의名物 美女橋와 벼락바위

美女橋(미녀다리)와 벼락바위는 百濟末年에 王子放蕩하야 彩雲山의勝區를차저서 扈從과더부러大野派로催宴도 諸官과한가지醉興이 爛漫한王子! 山上에 저녁새쓰野平里를갈돌아내되는 細絲의村女가沐浴을하는데 妙한살빗! 달가튼얼골이 몹시도고와서 侍從을불러서 그美人을 불러오라하엿다 侍從은 山下로내려가 들판을건너가는중 細流에 臨하자 水深을 몰라주저하던바 無名의大師갓가는손으로 바위를 쪼개여『다리』를노코 건너가는지라 侍從이 따라 건느려한즉 青天에서霹靂을 치며벼락이 내리나 바위와 美人이간곳없고 侍從따러죽엇다 美女橋와 벼락바위일홈이宇內에퍼저서 無名大師의 神蹟을 怪常타하야 其後男女老少의 參觀이 不絕하엿다는 傳說이잇슴으로자못有名하다

江景의主山格 玉女峰의彈琴

玉女峰은 江景市街의 西北便으로 엇는 主山인바 白馬江上의 『더욱이배』와錦江本流의 적은삼 山明水 江心에 동동떠서

紹介版發行記念 投票當選發表

本紹介版의發行을 記念키爲하야 賢明한地方人士의 一般投票로 信用商店、美人、勝景을選定할가하고 지난六月一日부터 卅日까지에 募集하야 左에發表하는同時에 投票하신諸氏에게 謝意를表합니다

◇信用商店投票

一等當選 江景商會 九六六二票
二等當選 朴順丰商店 八九二〇票
三等當選 東一堂藥房 六四〇四票

◇美人投票

一等當選 劉桂香 九三二七票
二等當選 姜玉桃 八一九〇票
三等當選 朴爾香 一八七票

◇勝景投票(江景八景)

玉女彈琴 彩雲月明 黃浦歸帆 竹林誦詩 雙岩寺暮鐘 菁浦歸雁

一等當選(信用商店) 江景商會

江景本町의下市場을끼고 綢緞布와婚具一式家具等屬을 主要商店으로 十萬圓의資本을投하야 昭和八年春부터經營하는 江景商會는 二層煉瓦製의洋屋을 그店舖로 十數人의店員이 一日千三四百圓의賣上成績을엇고잇는 大商店인바 主人吳基亨氏는 開城出生으로 公州永明高普를 卒業하고 家業을 도아오다가 江景實業界에 進出하야 彗星과가티 江景實業界에 新한商人인바 今春郡實部까지 新設하고 멀니群山大田等地에 扶餘恩山等地에 去來를가저서 江景商業界를獨步하는觀이 잇스며 且支配人金元會氏는 敏腕을가저서 實業界의麒麟兒로 前途가매우 有望하야 同商會의飛躍的發展은 偶然이아닐것이며 信用을主로良品을 顧客에 올니고잇는 誠意는 江景商會의特長이아니라할수업다

◇寫眞—同江景商會店屋全景

一等當選美人 劉桂香

論山江景의名妓와 美色이近百名인데 堂堂六千餘票로 一等의 榮譽를가진 劉桂香은 京城 町出生으로 朝鮮券番에 妓籍을 두어든 芳年十八歲의곳다운青春美人이다 江景本町大成館 昨春에와다는데 健康美에찬肉體와한가지 十二分의魅力을가저서 人氣百퍼센트로 물니는편이며 京城美人의 容姿와 愛嬌는 傳統的이라 엇지 桂香한사람이라만은써!비스滿點의花卉園兒라하다 ◇寫眞—劉桂香

郡內私學一瞥

◇私立萬東學院=朝鮮女性의啓蒙運動線上에功績이 적은 女子初等教育機關으로 朝鮮開化初期의 新女性의 軍營이니 그歷史二十八年에 우리의딸들을 抱擁하여주든 萬東! 而今에 그 經營이困境에빠저서다가 校主尹 甌黙務의 特志로겨우겨우維持하는바 現在兒童數는 百三十名을 學級을編成하야 教育하는중에잇다

◇私立新都學校=鷄龍山新都面에잇는 甲子年을 前後하야 迷信의大衆이 濁水와가티 論山郡豆溪面石溪龍洞大南等地로 男負女載하고들어왓스나 이寒心한 大衆의子女는 갈길몰르고 彷徨하엿다 이擧術치아니한慘狀을 건지려고 上帝敎의援助를 바더 有志 林基昌氏가 昭和二年에創立하고 稱來數百의 卒業生을내엿는바 現在二百八十六名의 兒童을男女共學으로 五學級을編成하야 校長 金道輝氏와 職員五人이熱誠으로 教育하는중이다

◇私立新都學校=赤是論山郡豆磨面石溪里에잇는學校로 金貞默氏의 經營인데 本願寺의 援助를바더 地方住民의 子女를 教育하여주는것이다

◇私立幼稚園=論山과江景에한곳식잇는바 모다監理敎의經營으로 充實한內容을가지고 保育하는중이다

重要商店紹介(續)

◇株式會社三益社

株式會社三益社는 資本金十一萬圓으로 大正十二年五月二十五日에創立한後 吳服布、竹物、皮物、貿易、新鮮紙、洋紙類의 委託販賣를 하다는바 支配人田在鎭氏는 江景實業界에 敏腕을가진人物

良品主義의 國一商會 洋靴部 樂器部

論山의 青年實業家金昌晋氏의經營인 國一商店은 良品第一主義로 生産工程에原料의 精選과技術의精妙를 本位로하야 信用을博得하는바 洋靴及皮革製品의販賣와『코롬비아』『포리돌』『오-케』『세론』『太平』『유-코리아』各會社의蓄音機特約販賣各種樂器取次等을하고잇다

客室整備한 權一旅館

江景驛前에 새로생긴 權一旅館은 二層洋屋으로 지난五月에落成新築하고 客室整備하야 內外人士의宿泊에 不便이업도록用意한다하야 殊賀이발서잇는바이며 主人權在天氏는 一個職工으로數萬의財貨를모흔 勤勉의人이라한다

運輸界의覇王 錦江運輸會社

錦江運輸株式會社는 江景西町門邊에잇스며 江景의貨物을獨占運搬한다 하여도 無妨하다 發動船三隻이 잇서서 江景群山間 一日二回式 來往하며 錦江沿岸의住民交通의 便宜를 圖하야 一個年船客은 約十萬人이라하며 帆船二十隻으로 年年四十萬餘以上의 貨物을群山에 輸送하야 回漕界의 覇權을 掌握하고잇다는바 그重役은 如左하다한다 社長 上田朴 專務取締役 中原計正 取締役 西島寅吉 同 藤戶正臺 監査役 西川慶一

內外信望놉흔 金鍾善齒術院

江景黃金町에잇는 同院은 院長金鍾善氏가 往年道立醫院에서 齒科研究한後 二十年間江景에서 開業醫院으로 그名聲이 嘖嘖하다

士로서 業務날로隆昌하여가는대 同會社의 重役은左와 如하다한다 社長金瑞洙 取締役金培洙 同徐相善

連山自動車運輸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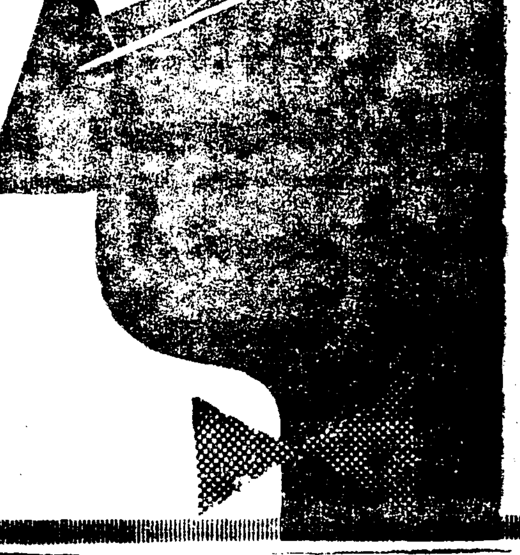
連山自動車運輸株式會社는 連山實業界의 巨頭李鍾珍氏經營으로 仁川、連山間連山、錦山間의定期乘合自動車의運轉及貨物運搬과(一)代行營業의 運送業을 兼營한다는데 資本金은五萬圓이요 昭和九年六月에創立하엿스며 重役은 左와如하다한다 社長李鍾珍 取締役姜永植 同金宅鉉 同吳仁煥

綢緞布木의巨商 江景發祥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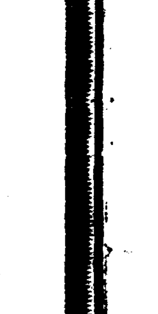
江景西町上市場入口에잇는 發祥社는 資本金五萬圓으로 綢緞布木을 卸賣하는 著名의商店이요 主人金東元氏는 大正六年仁川商業學校를 卒業한後 市外華山里에서 精米業을 經營하는有數한實業家이만치 再昨年新設한同社의業勢도 날로 繁昌하야 錦龍鷄山의顧客은勿論이요 每日如市하야 賣上五六百圓에 達하는盛況이라한다

小作人의不平업는 永保南鮮農場

朝鮮의富豪閔氏一門의 農場이니 黃金町米倉옆으로 廣大한倉庫와 最新의事務室은 論山、扶餘、舒川三郡의 土地를管理하는곳으로 主任閔丙肯氏는 寬厚篤實하야 그處事가 小作人의 怨聲을드지아니함으로 江景農場中에는 第一重厚하다는評判을드고잇다



麥藁帽도좃습니다
만은特히推奬하고
십흔것은 서늘한
丹頂チック
의整髮感입니다 이
에다가金鶴香水
를併用하면涼味는
참말로百퍼-센트



愈々暑くなります

포마-드외가티 번쩍번쩍하지안코 자연의美!!
特許製品이며 使用하고便利합니다
여름의整髮은 丹頂에限합니다

丹頂時代로!! 포마-드時代에서 丹頂時代로!!

"過當投機抑壓"이 主眼

現物商에게는 認可制

取引所改善策委員會案全貌

商工省에서는 取引所制度의 改善을 圖키爲하야 昭和八年以來 民間經濟關係者에 諮問을 發하는 一面 取引所制度調査委員會를 設置하야 改善案을 만들어오든이다 民間經濟諸團體의 意見은 昭和九年度까지 全部提出되야 取引所制度調査委員會에서도 이미 그 大體는 小委員會에서 成案되야 今春總會에 附議하야 再檢討中이더니 大體 今月로서 大綱의 完成을 보게될모양이므로 暑中休暇가 끗난뒤에 九月中旬頃에는 總會를 열고 이것을 附議하고 調査委員會로서의 答申案을 決定키로 되엿다 그래서 商工省에서는 通常議會에 이것을 提案하기로 內定하고 小川商相은 調査委員會의 答申決定을 기다려 그全貌를 公表하야 一般의 反響을 보워 事務當局에 下命하고 이것을 基礎로 立案에 着手할 方針인데 取引所制度의 改善目標는 健全한 實買取引과 投機를 圓滑安全케하고 取引所로하야곰 經濟界의 實勢를 正確히 反映케 할 公共機關이 되게하야 一般經濟界及 社會公衆의 公正한 利益을 擁護함에 重點을 두는同時에 經濟界의 急激한 變動을 招致케하는 過當投機를 極力抑壓하는 方針아래 現行의 取引所及 取締規則의 改正案을 하야 投機取引에 關係가 잇는法令이로서 取引所制度를 改善하라는 意見이 有力하다。

「改革大綱 主要點」

調査委員會에서 問題된 取引所改善의 大綱中 그 主要한 點은 다음과 갓다고 한다

(一) 會員組織에 依한 取引所는 理想論이나 日本에 잇서서 自然히 發達한 現行制度의 長點을 認하고 漸進的方法으로 現在의 株式組織에서 會員組織으로 移行할일

(二) 現物商의 從來의 放任制度으로 認可制度를 採用할일 現在株式市場外 特히 地方에 多數散在하야 現物商에 對한 統制를 하기 爲하야 現物商을 認可制로하고 新規開業者에 對하야는 一定한 資格을 設하야 制限하고 現在의 業者에 對하야도 相當히 制限하는同時에 取引에 關하야도 不正不當한 行爲其他의 取締規則을 制定할일

(三) 取引員組合에 法人格을 줄일 卽現行取引所法에는 取引員組合이 아즉 法律的으로 認定치안는結果 組合機能의 遂行及財産權의 主體로되엿서 不便한때문에 그中 委託者를 保護키爲하야 積立金制度를 設할境遇 第三者에 對抗할수잇도록하기爲하야 取引員組合에 法人格을 줄 必要가잇는點

(四) 委託者를 保護키爲하야 取引員組合의 積立金制度를 設할일 卽最近大株取引員의 破綻 … 組合이 實際的으로 普及케할일

(五) 委託者와 取引員間의 紛爭을 圓滿迅速히 解決하기 爲하야 取引所役員 取引員 法律家其他公平한第三者를 加한 調停委員會를 設置할일

(六) 取引員과 現物商의 過去投機抑制의見地上 實際商이 開하고 誇大한 宣傳廣告는 禁하고 委託手數料의 割引等으로 因한 取引員間의 不當競爭을 防止하는同時에 不良外交員整理를 하기爲하야 取締方針을 確立할일

(七) 實買取引의 擔保制度에 關하야는 取引所의 組織을 將來漸進的으로 會員組織에 移行케할準備로 現在短期取引에對하야도 漸進的으로 共同擔保制로 移行할수잇는길을 열게할일

(八) 國債取引市場의 改善을 圖할일

(九) 過當投機抑制의 見地로 短期取引의 改善을 圖할일

取引所制度改革問題再燃

當所株上場禁止說로

株式市場休會

朝取證券部도追隨休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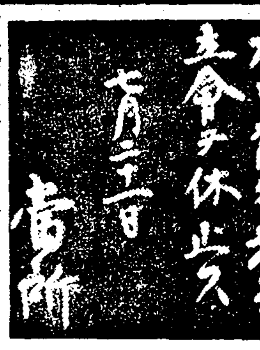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一兩日來 擡頭된 取引所制度의 改革問題의 再燃으로 市場人氣가 軟化되엿다가 當所株上場禁止問題를 傳하야 廿一日의 市場은 極度로 混亂하야 東株取引所取引員組合에서는 定刻立會開始前에 緊急幹部會를開하고 對策을 協議한結果 市場氣配를 觀察키爲하야 立會를 休止하기로 決定하엿다 大阪、名古屋兩市場도 東京에 追隨立會를 延刻하얏다

▲東株＝【東京電話同盟】人氣極度로 悲觀되어 午前十時까지 中止되엇던 東京株式市場은 更히 動搖가 甚하야 今日은 前後場共히 休會키로 委員會의 結果決定하엿다

【東京電話同盟】東株上場禁止投機金融制限이 傳하야 立會를 中止한 東株當局은 二十一日午前直時 重役會를 開하고 善後策을 講究하는同時에 取引員組合委員長으로하야곰 商工當局을 訪問케하고 그眞意를 聽取케하기로 되엿다

▲大株＝【大阪電話同盟】大株市場은 二十一日立會를 一時中止하고 善後策을 協議한結果東京市場과 步調를 가티하기爲하야 午前十時半에至하야 同日의 前後場共히 臨時休會키로 決定하엿는데 그結果 二十一日은短期의 受渡를行치안키로 決定하고 日步는 前日의 것을 踏襲할旨를發表하얏다

▲朝取＝朝鮮取引所도 二十一日前場은 證券部立會를 十時까지 延刻하고 午前九時半緊急商議員會를 開催하야 對策을 協議한結果 結局二十一日은 全部立會를休止하기로 決定하얏다(寫眞은 朝取證券部 立會休止揭示板)



商相聲明

◇…取引所側과 協議

【東京電話同盟】取引所의 立會中止善後處置에 對하야 小川商相은 閣議決定에 基하야 二十一日 如左히 談話形式으로 聲明書를發表하얏다

取引所制度改革案에 關하 今朝의新聞記事에 對하야 今日閣議에서 商工大臣으로부터 「取引所制度改善에 就하야서는 昭和九年의 閣議決定에 基하야 設置한商工省의 取引所制度調査會에서 五十回以上에 亘하야 委員會를開催하고 愼重審議中이다 右調査會와 沒交涉으로 他部門에서別로 如斯한 案을 作成하얏다는 事實은 全然없다」라고 報告하얏다

當局은 보고잇는바 더욱 慎重을 期키 爲하야 二十一日午前 杉野取引所理事長 坂重務理事其他一般短期實物等 各委員長을 招致하고 實情을 聽取하얏다。

【東京電話同盟】商工省村瀨商務局長은 廿一日午前九時半 首相官邸에서열닌閣議出席中의 小川商相을 訪問하고 東株取引所立會停止를 報告하고 對策에 對하야 重要協議를하고 辭去하얏다

大藏 商工 兩省管理方針

◇…馬場藏相의言明

【東京電話同盟】當所株上場禁止問題에 關하야 馬場藏相은 二十一日午前十一時半에 如左히 言明하엿다

當所株上場禁止問題는 全혀나의 關知할바아닌것으로 新聞을보고 내自身이 驚愕하얏다 當所株上場의 禁止와 淸算取引의 取締等 取引所改革에 關한것은 商工省의 所管問題로서 大藏省으로서는 全然考慮치안하다 取引所의 大藏商工兩省共同管理에 關하야서는 特別議會에서도 說明한바와가티 金融統制의立場으로 實現할方針이오 商工省間에도 意解가成立되어 目下具體的方法과 範圍에 對하야 事務當局에 研究케하고잇다 先般大藏省의 事務官이 東株取引所를 視察한것은 共同管理問題에 對하야 調査할 必要가잇서 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서 取引所關係의役員과 會員에 說明하기로되엇는데 이點을 充分히 說明하고저한다

賀屋理財局長談

【東京電話同盟】大藏省의 賀屋理財局長은 當所株上場禁止問題에 關하야 二十一日午前十時半 如左히 말하얏다

當所株上場禁止問題에 關하야 그事情을 大藏省에서는 全혀 모른다 그러나 內閣調查局에서나 大藏省에서나 이 問題에 對하야서는 何等具體的研究를 한일이업다

殖産局은 樂觀

이번立會停止는 問題가 取引所自體에 關聯한것이오 一般財界에 波及함은 적을것이라고 생각한다

◇…馬場藏相의 言明에 따라 先般東務官을 東株에 出張케하얏는데 그것은 다만 取引所의 實務見學을 식힌것으로 이問題에는 何等關係가 업고 다만 取引所의 大藏省 商工省의 共同管理는 金融統制의 立場으로 馬場藏相年來의 主張이나 아즉 商工省과 具體的으로 何等交涉을 進치안헛다

成案이라流布된 改革案의內容

▲某取引店入電情報＝今朝東京大阪의 某新聞에 揭載된 것에 依하면 大藏省、內閣調査局의 成案으로 取引所改革案은 投機極力抑制의 實物本位인데 그大體의 目標는 如左하다

1、財政膨脹과 公債增發에 依한 惡性인푸레의 防止와 公債消化策

2、株式投機에 依한 財界의 變動防止와 證券市場의 健全發達

以上의 目的을 達키爲하야

1、銀行其他의 金融機關의 株式投資資金의 供給을 抑制할

2、不良取引員整理

3、取引員의 自己賣買禁止

4、證據金을 時價의 五、六割까지

▲某取引店入電情報＝東新은 東京百十八圓 實際、大阪百圓賣買 大新은 五十圓賣買인데 取引所改革案內容은 如左하다

1、不良取引員整理

2、銀行其他金融機關의 株式投機抑制

3、投機抑制、實物本位

4、取引員의 自己賣買禁止

5、取引所機構改革(企業組織化)

6、外交員整理

7、委任證據金은 時價의 五、六割

8、當所株上場禁止

現狀에잇서서는 現制度대로도좃타 萬一戰爭의境遇는 取引所는 閉鎖하는 等 研究

今日某新聞에 傳한 當所株의上場禁止案은 商工省案도아니오 大藏省案도아니고 全혀從來의 風說의範圍이니 冷靜히 取引을 行하여달나

今日右立會開始前 東株短期委員長遠山元一氏는 場내에서 一同에게對하야 이와갓흔 聲明을 하얏다 今日의 立會는 目下疑問이 解決되기로된바 市場人氣는 至極창皇하야 東株組合에서는 大阪市場과도 協議하야 如斯히 立會를 十時까지 延刻하고 東株組合은 一同休會로하고 …

八圓賣際까지 나왓고 市場은 買物이 皆無임으로 東株理事者는 卽刻立會를 十時까지 延刻하고 東株組合에서는 大阪市場과도 協議 …

五圓賣際(前日大引百廿九圓卅錢)으로부터 漸落步調로되어 百十 …

會開始前에 百二十四圓五十錢으로 …

◇…制度改革을 압두고 各地株式取引所 (上)東株 (中)大株 (下)朝取證券部

眞相糾明에 全力傾注

根本對策樹立코저

【東京電話同盟】當所株上場問題로 非常한 衝擊을 受한 東株取引所當局은 政府의 聲明을 信賴하고 形勢를觀望코잇는데 問題의 根據를 糾明하는同時에 將來에 關하야 愼重調査한後 根本對策을 樹立할必要가 잇다고보고 잇다

格別히 根據잇는 取引所制度의 改革說이 아닌듯하며 日本內地에 追隨한것이다 中央의 問題의 根本究明에 依하야 局面을 明朗할것이오 投機抑制取引所制度改革에 對해서는關知한바엇다

商相聲明

【東京電話同盟】小川商相은 東株取引立會停止問題에 關하야 二十一日의 閣議에서 馬場藏相과 協議한後 聲明書를發表하야 事態의 安定策을講究하는同時에 午前十一時半부터 本省에서 主管局長인 村瀨商務局長波江野取引課長을 招致하고 取引所立會停止狀態에 對하야 詳細報告를 聽取하고 그對策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株式取引의 後場再開는 事態收拾이 容易치 안흠으로 今日中은 休會하기를 東株當事者에게 指示하기로 決定하얏다 問題는 流說에 依한것이므로 商相의 聲明에 依하야 直時 安定될것으로 當局은 보고잇는바 …

取引所의 立會停止는 全然考慮할수업다」라는 旨를 說明하는바 馬場藏相도 全然新聞記事報道와 如한 改革案은 事實無根이라고 言明하얏다 右記事의出所等에 對하야 內務省에서는 充分히 取締키로되엿다

急激實行은 影響이크다

加藤朝銀總裁談

株式取引改革案은 目下出張中인 取引所改善委員會長으로한 委員會에서 案을研究코 잇든데 如何한案에 依하던지 急激히 實行에移하야서는 影響이 크므로 實行하기로하면 相當한期間을두고 形勢의影響을보아가며 實行할것이다

"單純한 떼마"

秋山朝取常務談

떼마로 立會休止에까지 至한 것이나 그러나 당황한 案이 成案될 일이업고 商相의 聲明으로 人心이 安定될것이다

朝鮮銀行 北中進出

目下調査中

▲加藤鮮銀總裁談＝北支의 當所擴充에 對하야는 政府의 方針이 確定되지 안흔 때문에 銀行으로서 方針을 樹立할수업스나 冀東 冀察 兩政權의 整備에 依하야 同方面의 金融問題를 解決할必要가 잇다는 點에 對하야는 各方面에서도 意見이 잇는모양이다 目下大藏省에서는 富田財務官이 當地에서 松田理事가 現地에 出張하야 調査中이라

水稻移秧九割餘

未了六萬四千町步

七月廿日現在全朝鮮狀況

【二十一日農林省發表】七月調査하면七月中旬의 降雨로 因하야 南朝鮮諸道와 平安北道、咸鏡北道는 거의 完了하엿스나 京畿黃海平南의諸道는 依然降雨가업서 七月十日現在에 比하야 移秧이 微微하야 咸鏡南道、江原道도完了에 못될것이고 停頓中이다 卽 七月二十日現在移秧終了面積은 百六十三萬三千九百九十三町一段步로 今年의 移秧豫想面積의 九割六分二厘에 相當하고 六萬四千五百三十九町一段步의 移秧未了이다

七月二十日現在水稻植付狀況

道名	移秧面積(町)	同上割合(割)	七月十日現在移秧比例(割)	七月廿日移秧未了面積(町)
京畿	一八六、四九三、九	八、九四	八、六八	三、一〇八、六
忠北	七一、三三三、四	九、九九	九、七一	一四三、九
忠南	一六三、二四五、一	一〇、〇〇	九、五六	—
全北	一七三、六一四、六	一〇、〇	九、八八	一、三五
全南	三一一、三三三、八	一〇、〇〇	九、八六	—
慶北	一九三、七五五、〇	九、九六	九、五五	三六八、三
慶南	一八〇、七三三、一	一〇、〇〇	九、二〇	—
黃海	一二六、九六六、三	八、一五	八、一三	三六、五四八、四
平南	七四、三六〇、九	八、九三	八、九三	八、九三三、四
平北	九六、八六三、四	一〇、〇〇	一〇、〇〇	—
江原	八八、七八一、五	九、六六	九、六一	二、九三四、九
咸南	五九、三六九、六	九、四六	九、五六	三、三四〇、一
咸北	一七、二四〇、四	一〇、〇〇	九、四四	—
合計	一、六〇三、九九三、一	九、六三	九、六八	六四、五三九、一

【備考】本表는各道의今年移秧豫想面積에 對한移秧終了面積과그比例를示함

南朝鮮은 百%移秧

山本技師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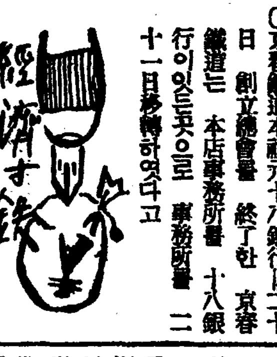
七月十日以後 同二十日까지南朝鮮에는 連續的으로 豪雨가 襲來하야 局部的으로 水害가 잇섯스나 移秧은 大體百%에 達하엿다 七月二十日 現在全朝鮮百六十三萬四千町步의 移秧이終了케되여 前回에比하야 …

株式 各地모다 休止

人氣全혀混沌

東京大阪某新聞에 發表된 取引所制度改革案이란것이 商相、藏相의 聲明에依하야 "떼마"인것이 判明되엇스나 取引制度改革은 이미 委員會를 五十回나 열고 目下協議中으로 어떠케든지 改革되고말 運命에잇는것으로서 藏相言明에 依할지라도 取引所

商況 【廿一日】



○ "떼마"로 이지경이니 굉장한 "떼마"

○ "떼마"라고 우습게 알엇더니 非常時 인것을 如實히 證明하는일

○ 松原朝銀副總裁의 전번 渡東을보고 朝鮮券廢止의 "떼마"가 돌더니

○ 北中에잇서서의 朝銀 機能擴大를 爲한것 이엇다고

○ 이따위가 정말 "떼마"

經濟界消息

大陸社長井上收

取引停止

(七月十七日)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四八番地 日刊生薄研究所이다

○京春鐵道本社元十八銀行＝二十日 創立總會를 終了한 京春鐵道는 本店事務所를 十八銀行이잇든곳으로 事務所를 二十一日移轉하엿다고

今日財界 (廿一日)

◆米

		前日比
仁川期米 先限	三二、三三	休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正米(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三等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

◆株

		(單位圓) 前日比
朝取新	—	
東新	—	
日產	—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不變
고무FAQ	[illegible]	[illegible]

秋收豫想은 豐作에 比하면 아즉도 四萬二千町步의 增加인데 移秧의終了가 移秧되고 南朝鮮은 依然降雨가업서 京畿、黃海、平南諸道에 있서는 다시 移秧이 進捗되지 아니할것이라 咸南、黃海、平南地方에서는 枯死에 빠지는 애가 잇스나 이로써 豐凶이 決定될것은 아니다 江原道에 있서도 移秧은 각 地方에 依하여 保護하여 …

東亞證券

株式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事業株는 別個

統制經濟時代下의 株式取引은 決코 投機一方主義로 갈수업는것이로 取引所株는 昔日의 豪華한 場面을 바랄수업는터로 東新大新에이어서 朝取新株도 高價揭揚을不許할것으로보이나 一般事業株는 依然保合에 立脚한 投資에 依하야 取引所株不勢에 不拘코 別個의 波瀾이 업스리라고 觀測되는 바 東新은 一時의 動揺이라도 結局悲觀할것은 업슬것으로보는 모양이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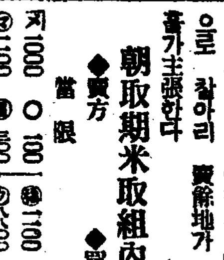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株式市場은 臨時休會이나 公債市場은 定刻부터 開始하얏다 取引所改革案과는 直接影響이 업슴으로 人氣는 意外로 穩和하얏는데 株式休市로 高價讓步이고 內債五錢乃至十錢低、佛貨債는 二十錢低、米貨는 利喰賣가 만혀六分半 一圓五十錢五分半 九十錢 讓落이엇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六〇 ▲第三五回四分利 一〇一、六〇 ▲佛貨四分利 一九〇、八五 ▲二二年一〇二、三五 ▲二八年一〇二、三〇 ▲一回四分一〇一、三〇

康益夏商店 米株 京城 仁川 金益證券



株……二、二六事件으로 立會休止하얏던것을 겨우이저버리려는이때 廿一日의全國株式市場은 또南天靂靂가리 取引所制度改革問題로 立會休止▲會員組織化、當所株上場禁止、金融機關의株式金融抑制、가튼 것이 實現될것이아니라고 亦是 無限하는사람이어지안흐나 ▲大勢는 改革에 一步식進할 것이라 首肯치안흘수업슬듯▲株式投資를抑制하야 公債를消化키爲하야서 될듯도한노릇▲何如間東新、大新等은 暴落說이잇는데 果如何?

米……二、二六事件은 元來政府를革新하려는 計畫일에突發한것으로 그計畫그대로 新內閣을組織하고 庶政一新의行進曲을알외엇섯다 ▲戒嚴令을 解除하지 메칠이못된 今日에 二、二六事件의記憶이 一般의 腦裏에살아지지도 아니하거니와 今朝株式市場休止로 또 陰鬱▲政府는庶政一新을 一般民衆에公約한以上 實現하여야할것▲今이다그러고實現되여야할것▲今朝株式市場의休會는 全혀庶政一新의一機인데 米界에는 將次如何한餘波가미칠고 두고보자

期米 株休會로 下落

▲二圓四分(三等、二六) ▲米貨六分半(一六〇、三)

前場少押 昨後場受成을二十三圓四十錢으로하고 本場으로 前場最初 今十一錢에 接近하였는데 三十一圓三十五錢이 되엿다 前場初三十二圓三十錢이며 十一圓十二錢까지 下押하엿다가 三十八錢으로 三十一圓二十錢이 되엿고 一錢으로 二十三錢까지 暴落하고 後場低落 後場은 三十一圓二十四錢에 一丁高로 始場後 漸落되어 十二錢에 低落止하엿다

各地俄然一押

株市場休會로

今朝株式市場은 取引所改革問題卽取引所株의 上場禁止又는 會員制組織의 說과 東新百十八圓賣에 賣手가 全然하다는 說이잇는 方으로 株式市場은 立會延刻으로 株界의 人氣가 惡化하자 그餘響은 米界에까지 波及하야 前場先限三十二圓三十五錢인 地先보다의 五丁低로 二十九錢까지 下押하엿다가 當地는 又一層軟弱하야 先限三十一圓十一錢인 止價보다의 二十丁反落을 告하엿다 그러나 쌀장의 事情이 다

强弱兩方觀測

去二月二十六日 東京에서 突發한 事件은 庶政一新을 目的으로 한것으로 其後 新內閣이 組織되엿스나 아직까지 何等의 實現이업는바 第一投機界를 中心으로 株界를 取締하지안코 株式界에 取하는 弊害를 除去하기 爲하야 取引所의 改革 卽 取引所株의 上場을 禁止한다는 說이 傳播되는 一方으로 株式市場은 今朝 一時休會하게 止하엿다 이로 因하야 米界에는 强軟兩派로 觀測이 區區한바 强派는 말하되二、二六事件이 突發하엿슬 當時에 入하엿스나 今朝의 期米相場도 一時的現象으로 株界의 事情如何를 不拘하고 昂騰할 것으로 主張하며 軟派는 二、二六事件이 反하야 米價가 低位에잇섯슴으로 昂騰할 餘地가 잇섯스나 今日에는 米價가 高位에잇서 消費者의 苦痛이 되지아니할수업는 政府의 政策도 此以上의 高價를 許하려하지안흘것이다 그럼으로 차아리 賣餘地가 잇지안흔가 主張하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지一〇〇〇	〇一〇〇	지三〇〇〇	㊄二〇〇
	㉠一〇〇	㉡三〇〇	㉦六〇〇	㉨三〇〇
中限	지六〇〇		가七〇〇	
先限	지三〇〇			

堂島前場不勢

【大阪電話】今朝株界의突發的事情으로 嫌氣하야 買物不振이오 低價示現이나 正米强氣로 底步調에 轉하얏다 今後의天候와 政策關係로 一低一高의 商勢인바 地場으로서 相當한賣物이잇스나 下勢遲延함은 田中眞의 豪賣米와 思惑買氣가 深甚한 一方 株界에도 新東一萬株의賣玉을 가지고잇서 今朝事情으로 好機에 立하야 新東賣玉을 好機로 株界로부터 손을떼이고 米의思惑에 全力을 集中하는 態度이엇다

各地正米

今朝堂島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地場、東京側 ▲買方＝地場、沙峽、沙故

京城弱含

買行은 依然引立

仁川軟化

依然小口取引이 散見되는 程度로 取引은 極히不振이오 期米低와 相俟하야 十錢低의 九二三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三圓五十錢

釜山强含

新規貨物이 乏 來되나 今朝는 新規貨物이 出現하야 市況은 强含氣味이엇지만 活氣가 乏하엿다 角二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四十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錢

大邱下押

日本內地의 買氣潛在氣味이나마 定期軟調로 依然히 市況이 活氣가 乏하고 十五錢低 五錢 四等三十圓二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九十五錢

群山好調

產地賣物도 日本內地當用側의 買로 比較的 잘 消化되어오래가만에 市況에 活氣를帶하엿스나 定期不勢로 伸惱인 步 三等三十一圓二十五錢 四等三十一圓 一等白米十三圓

木浦軟化

實行不弱立으로 一般이 買離이데다가 期米의 軟弱으로 十錢軟化인 丸木三等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一圓丁 一等白米十三圓丁

大阪砂糖臨時休會

大阪砂糖市場은 今日前後場共히 臨時休會이다

商品 廿一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京城綿絲布市況◆

◆京城綿布◆

◆綿絲布市況◆

◆綿絲布◆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日本麥粉市勢◆

金融 廿一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期米 廿一日

◆朝取期米◆ (當限 中限 先限)

◆朝取期米賣買高◆ 出來高 合計 本期總計 三、〇〇〇 中 一四、〇〇〇 先 五一、〇〇〇

◆大阪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當日相場◆ 日本米上 三三、八〇 中 三三、〇〇 下 三二、八〇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 白米一〇、四八、四八六 朝鮮米 二三、七八〇 臺灣 一二、九四四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株式 廿一日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五、一五〇 累計 四三〇、〇五〇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取組◆

◆實物取引◆ 朝取新、東新、大新

商品 廿一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大阪砂糖◆

◆滿洲正米◆

◆海外砂糖◆

◆各地正租市勢◆(單位斗)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仁川 群山 木浦 大邱 鎭南浦 新義州 元山 咸興 馬山 平壤 釜山

◆日本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屋

◆對外爲替◆

◆紐育綿花◆